



서울시의사회 신임 회장에 황규석, 의장에 한미애 후보 당선

166명 중 99표 득표...“국민의 신뢰 되찾는 데 온 힘 다할 것”

신임 의장은 131 표 득표한 한미애 후보 “잘 듣는 사람 되겠다”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결의문 통해 ‘의대증원’ 철회 촉구

서울특별시시사회 신임 회장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당선됐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신임 의장은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이 당선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36대 회장 및 제24대 대의원회 의장 선거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163명의 대의원이 참여해 신임 회장과 의장 투표를 실시한 결과, 회장은 99표를 득표한 기호 2번 황규석 후보(현 서울시의사회 총무법제부부장, 움트앤팜므성형외과 의원장)가 64표를 득표한 기호 1번 이태연 후보(현 서울시의사회 보험부회장, 날개병원장)를 제치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의장 선거에서는 131표를 득표한 기호 1번 한미애 후보(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한소아청소년과의원장)가 32표를 득표한 조문숙 후보(전 노원구의사회장, 제민통합내과정형외과의원장)를 제치고 제24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다.

황규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의료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으로 일하겠다. 지금 의료계가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국민을 치료해야 한다.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하면서도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회무를 실행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서울시의사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대신 보험에 대해 정말 열심히 체계적으로 공부했다”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의료계와 서울시의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지난 1991년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현재 강남



<사진 왼쪽부터 황규석 신임 회장, 한미애 신임 의장>

구에서 움트앤팜므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강남구의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강남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및 부회장 등 서울시의사회 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이사 및 윤리위원장을 지냈고, 대한개원의협의회 공보이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의료분과위원, 근로복지공단 자문 의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선거 주요 공약으로는 △15층 규모 서울시의사회관 신축 △동창회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 증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교육 대행 조례 제정 △의료약법 개정을 위한 정책 참여 △면허 관리 및 자율권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한미애 신임 의장은 잘 듣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의장이라는 직책은 회장과 다르다. 회의를 할 때 발언권이 없다. 즉, 듣는 자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듣고 고민하겠다”며 “다만 위기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집행부에 건의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서울시의사회를 위해서라면 변화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애 의장은 지난 1984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현재 양천구에서 한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로 선출된 이후 예결산전문위원,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선거 공약으로는 △대의원회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각구 의사회-대의원 간 소통 강화 등을 내세웠다.

▶ 3면에서 계속

한국인의 다국적 제1기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오메가-3

신기술·신개념으로
유나이티드합니다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아트맥콤비젤®

Atorvastatin 5mg, 10mg / Omega-3 1g

혈관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한번에!

아트맥콤비젤은 국내유일의 아토르바스타틴과 오메가-3 복합 **개량신약**입니다. ✓3상 임상으로 유효성 입증 ✓장기 안정성 확보 : 국내 최초 콤비형 제형 ✓단일제 대비 유효성 개량 ✓기술의 진보성 : 방유코팅*, 보호피막*
Rel. 1) 특허 제 10-179700호, 2) 특허 제 10-195907호

국내 최초 Aspirin + Rabeprazole 복합제

 **라스피린** 캡슐
100/5mg (아스피린/라베프라졸)

출시!
(2024. 2. 1)



- 한미약품 자체 생산, 국내 최초 Aspirin+PPI 복합제
- 저용량 Aspirin에 의한 GI trouble 위험 감소 효과¹⁾
- 독자적 Polycap 제제기술을 이용한 1pill 제제로 복약편의성 제공

 **한미약품**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임현택 후보 당선

총 3만3084표 중 2만1646표 얻어, 주수호 후보를 1만208표 차이로 따돌려 "회장은 회원 의견 대리 수행 역할, 전공의와 의대생이 기댈 수 있도록 노력"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임현택 후보(미래를 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가 당선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 실시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투표 개표에서 총 3만3084표(투표율 65.28%) 중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2만1646표(65.43%), 기호 2번 주수호 1만1438표(34.57%)를 각각 얻었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1만208표. 총 선거인수는 5만681명이다.

임현택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당선의 기쁨은 없다. 무거운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회원들이 믿어 준 만큼 감당해 내겠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전공의 의대생을 믿어 주고 선배로서 기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는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화할 수 있

는 의지가 생길 때 협의는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 회장의 자리는 회원들의 의견을 대리 수행하는 역할이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만큼 3년간 회장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투표에서는 전체 유효투표수 5만681표 가운데 주수호 후보는 9846표(29.23%) 임현택 후보는 12031표(35.72%)를 각각 얻었다. 임현택 후보가 2185표 앞섰다.

임현택 당선자(1970년생)는 충남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립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해 오다 소청과개원의들이 모여 만든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모임'의 대표를 맡으면서 이름을 알



렸다. 임현택 당선자는 소청과의사회 첫 직선제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의원을 폐업하고 오로지 소청과의사회원들의 고충 해결 집중해 왔으며, 적극적인 지지로 5연임 회장직을 맡고 있다.

특히 임현택 당선자는 소청과뿐만 아니라 의료계 모든 현안과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법적 대응 등에서 적극 나서 왔으며, 최근 '미래를 생각하는의사모임'의 대표를 맡아 보다 폭넓게 활동 중이다. 김동희 기자

▶ 1면에서 계속



이날 정기총회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의사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법령·회칙, 의무·홍보, 보험·학술 등 각 분과위원회 심의안건, 대한의사협회 건의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이날 총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정책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규탄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의사들의 헌신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파탄내 의사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이어지는 것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게 과연 옳은가"라며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부·여당의 영성환 의료정책 발표는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추진을 당장 중지할 것 △의료정책 패키지 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해 재검토할 것 △의료정책 설립과 추진에 있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도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임기를 마친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3년 전 회장 선거 입후보 당시 '지역에 남는 회장이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떠난다"며

"임기 동안 서울시의사회 역사상 최초로 국무총리의 격려방문도 있었지만 경찰압수 수색도 받았다. 사무처 직원들과 의협 비대위 관계자들까지 조사를 받게 돼 너무 미안하고 새로운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많은 성과를 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역시 이날 임기를 마친 이윤수 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저출산 시대에 IT 산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의사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허황된 목표를 세웠다"라며 "젊은 의사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카테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학교 간 공유하겠다는 등 막말을 일삼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하루빨리 경질하고 올바른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열 기자

2024년 송파구의사회 춘계 온라인 학술대회

| | | |
|---|--|--|
| <p>1탄 4월 20일(토)</p> <p>2탄 5월 18일(토)</p> <p>3탄 6월 15일(토)</p> | <p>처음 진단받은 당뇨 환자, 치료 잘 시작하기</p> <p>폐 기능검사 결과의 해석과 흡입제 맞춤 처방</p> <p>심장이식, 어디까지 왔다</p> <p>북부영상진단과 간암의 비수술적 치료</p> <p>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흡혈곤충의 의학적 이해</p> | <p>조재형 교수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p> <p>이진국 교수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p> <p>정성호 교수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p> <p>박희선 교수 (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p> <p>김주현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열대학교실)</p> |
| <p>동반질환을 가진 고혈압 환자의 효과적인 약물 선택</p> <p>젊은 환자의 탈모치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나</p> <p>소장병증과 캡슐내시경</p> <p>최근 늘어나고 있는 감염병 놓치지 않고 진단하기</p> <p>외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암환자의 영양요법</p> | <p>박재형 교수 (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p> <p>이건홍 원장 (홍피부과의원)</p> <p>김진수 교수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p> <p>정두연 교수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p> <p>염창환 병원장 (염창환병원)</p> | |
| <p>고지혈증 치료제의 최근 이슈와 주사제 치료</p> <p>협심증과 심근경색 심전도 마스터하기-다양한 증례를 중심으로</p> <p>허약한 노인의 특성에 맞는 다제약물 조절</p> <p>치매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증세와 일차진료에서 할 수 있는 처방</p> <p>구강암의 조기진단과 예방</p> | <p>송기호 교수 (건국대병원 내분비내과)</p> <p>장기욱 교수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p> <p>백지연 교수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p> <p>김희진 교수 (한양대병원 신경과)</p> <p>백정환 교수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p> | |

사전등록 신청방법

- ▶ 사전등록 사이트 <http://spma2024.co.kr> 접속 후 사전등록 진행
- ▶ 송파구의사회 회원 무료 / 타지역 및 비회원 회당 1만원

사전등록 기간

- ▶ 1탄: 3월 19일(화) ~ 4월 17일(수)
- ▶ 2탄: 4월 23일(화) ~ 5월 15일(수)
- ▶ 3탄: 5월 21일(화) ~ 6월 12일(수)

송파구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의료정책 투쟁기금 한시적 신설키로

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회무보고·결산보고 등 심의

서울시의사회가 의대정원 증원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투쟁기금'을 신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시의사회 대의원회 '사업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한미애)'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총 28억7829만원으로 책정된 올해 서울시의사회 예산안을 심의·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선 서울시의사회에서 '의료정책 특별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안건이 통과돼 30일 열리는 제78차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다.

한미애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제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 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특별기금을 마련키로 했으며, 본회도 별도의 특별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회 집행부에 전달함에 따라 '의료정책 투쟁기금 예산(안)'을 한시적으로 신설해 지난 19일 2차 이사회를 거쳐 본 안건을 상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투쟁기금은 2024년에만 한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계속 건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도 정부에 저항하다가 법적으로 곤란한 일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만약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그런 경우를 대비해 한시적으로 특별기금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운영위에서 급하게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설아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는 "앞서 책정된 3천만 원의 관련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해 개원의와 의대교수, 봉직의 회원에 한해 2만 원씩 걷어 주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장에서 즉시 거수 표결이 실시돼 31명의 참석 대의원 중 28명이 찬성해 본 안건은 가결됐다.

이날 수차례의 경찰 소환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지원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한미애 위원장은 "비대위 규정에 '본회 또는 협회 업무수행으로 인해 형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은 회원은 특별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박명하 회장 외에 다른 회원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명하 회장은 "앞서 한미애 위원장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마음만 받겠다고 했지만, 전공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다가 수사를 받게 된 다른 분들까지 생각해 거부하지는 않겠다. 많은 액수보단 적절히 모양만 갖춰지면 감사하게 생각하겠다"며 "저 말고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다른 회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위로금을 주기로 하는 것을 집행부 권고 사항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토의사항(서울시의사회 회비납부 회원에 대한 차별화된 혜택 강구, 서울시의사회 동호회 활동 지원) △23년도 서울시의사회·의사신문 회무보고 △23년도 결산보고(일반회계, 특별회계) △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됐다.

한미애 위원장은 "지난 6년 동안 위원장을 맡았는데 함께한 대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30일 열리는 정기대의원 총회에는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상정됐으니 꼭 많은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준열 기자

“보험업계서 ‘자보 한방 분리’ 추진 중...최종 목표는 건보 분리”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27일 보험 및 학술 심의분과위원회 개최
각구의사회 건의사항 10개, 대한의사협회 건의안으로 전부 채택



서울특별시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지난달 27일 보험 및 학술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정승욱)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 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구의사회로부터 건의된 안건 총 10개가 전부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내용은 △의료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추진 △비급여 공개 보고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하향 조정 및 혼합진료 금지 철폐 △건강보험과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 분야 분리 검토 및 한방보험 선택 가

입권 부여를 위한 정책적 검토 △DUR상 출입국자 정보 즉각 반영 및 DUR에 약품이 겹칠 경우 처방 의원명과 조제 약국명 병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기준, 삭감 기준, 심사위원 실명 등 공개 △보건의료 지부 현지 조사 대상 선정 시 구체적 항목과 내용 공개 △심평원 진료비 심사분 이의 신청 기간 연장 및 상병코드 누락으로 인한 약제비 삭감 이의신청 기간 6개월로 연장 △국민과 의학계 중심으로 실손보험 간소화 재논의 △대한의사협회 내 고령화시대 대비 정책부서를 마련하고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방문진료 시 의사 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 수가 정상화 △구외의사회 연수 교육을 필수 평점 이수 가능하도록 개선이다.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 분야를 분리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지난 2022년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분야가 의과를 역전하기 시작했다. 전체 매출 중 50% 이상이 한방 분야"라며 "자동차보험에서부터라도 한방 분야를 특약으로 제시해서 가입자들의 한방 치료 선택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험업계에서 준비 중이다. 최종 목표는 건강보험 내에서도 한방 분야를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말 지정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라는 주체 자체가 보험회사 측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정보 보안,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진료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이 전송대행기관을 의학정보원 등 의료계 측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는 지, 의료정보가 보험계를 거치는 방안을 끝까지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각구의사회 연수교육 필수평점 건의안에 대해서는 송정수 학술부회장이 "매년 건의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의협에서는 너무 많은 기관의 연수교육을 필수평점으로 인정하게 되면 교육의 질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의협 집행부가 새롭게 꾸려지게 될 예정인만큼 새 임원진에게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0개의 안건 중 9건은 참석한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나, 10번째 안건 '각구의사회 연수교육 필수평점 인정'은 표결에 부쳐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채택됐다.

박예지 기자

2024년 4월8일자 신문은 쉽니다. '디지털 의사신문'을 통한 기사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의사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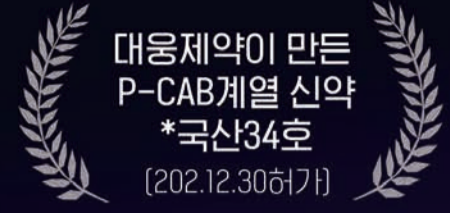
Doctorstimes.com

1960년 4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07546

사 장 황규석 발행인 이정근
편집인 김갑기 편집국장 대우 김동희
인쇄인 김갑기
발행소 서울특별시시의사회(www.sma.or.kr)

(우)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편집국 (02)2636-1056~8 광고국 (02)2634-9290~1
FAX (02)2676-2108 사무처 (02)2676-975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제 23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 수상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P-CAB, 펙수클루

FEXUOLUE

Fexuprazan hydrochloride



【제품명】 펙수클루정40mg 【원료약품 및 그 분량】 펙수프라잔염산염 40mg 【성상】 연녹색 장방형의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용법·용량】 이 약은 성인에게 다음과 같이 투여한다.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 1일 1회, 40mg을 4주간 경구투여한다. 식도염이 치료되지 않거나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의 경우 4주 더 투여한다.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경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해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아티자나비어, 넬피비어, 또는 일피리린 함유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3) 산호적응 산초 4) 일부 및 수유부 (6. 일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함 참조) 4)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신중투여】 간장애 환자(사용경험이 없다) 3) 고령자(고령자에 대한 투여 함 참조) 4) 이 약은 황색4호(타르트라진)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5~30℃) 보관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 30개월 【포장 단위】28정/상자(정/PTP) 4, 28정/병, 300정/병 【제조사/판매사】 대웅제약/충성제도 상주시 홀리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
※ 본 의약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제품입니다. 만약 구입시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변태 의심되었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한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자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부작용보고 및 피해구제신청: 한국약물안전관리원 (1644-6223), 대웅제약 소비자센터(수신자 부담전화): 090-550-8308~9 (WWW.DAEWOONG.CO.KR) ※ 자세한 최신의 허가사항은 식약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또는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F.) 1. DATA ON FILE, 허가용 임상 3상 연구. 2. 펙수클루 제품설명서, 식약처 허가사항(최종개정 2021.12.30)

서울시꺑, ‘회무 수행 중 행정처분’ 회원에 법률적·경제적 지원

회칙 개정안 법령회칙분과위 통과...30일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지원 근거 마련...‘의대 증원 반대 투쟁’ 박명하 회장부터 적용될 듯

앞으로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같은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시 의사 회원들에게 법률적·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법령·회칙 분과위원회(위원장 정영진)는 지난달 27일 서울 당산동 의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 지원’ 회칙 추가 개정안을 채택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지난 달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위원장과 박 회장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오는 4월15일~7월 15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박 회장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5차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번이나 조사를 더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박 회장의 서울시사회장 임기는 지난 달 30일 끝났다.

이에 의사회는 회무를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에 나섰다.

분과위에 따르면, 회칙 제11조 2항(특별 지원) 추가 개정안은 서울시사회가 의사회 또는 대한의사협회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진 위원장은 “박명하 서울시사회장이 정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서 “회장 임기도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사회는 회무 수행 중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들에게 법률적·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회칙을 추가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26일 개최된 예·결산 분과위에서 예비비를 사용해 특별지원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며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선 근거를 마련해야 가능한 만큼 대의원들께서 제11조 2항 신설에 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수 서울시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제11조 2항(특별 지원)은 회칙개정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발의된 것으로, 근거가 마련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만큼 대의원들이 이 조항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



달라”고 호소했다.

그 결과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회칙 개정안은 분과위 심의를 통과해 서울시사회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열린 제78차 대의원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이 통과돼 박 회장부터 지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분과위는 서울시 의사 선언 개정안도 상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제77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 의사 선언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및 법제위원회를 개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최종 개정안을 정리해 제78차 총회에 상정하려 한다”며 대의원들에게 승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서울시 의사 선언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분과위를 통과했다.

다만 매년 구의사회들의 ‘단골’ 건의 안건인 서울시사회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안건은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분과위는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회 신고 의무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대책 마련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회원에 대한 자율 징계권 부여 △불법사무장 병원 척결 △5인 이상 의료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과다한 의료법 위반 과태료 인하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 조항 즉각 삭제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등의 안건을 의협 건의안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홍미현 기자

의무·홍보 분과위, ‘의대정원 확대 폐지’ 등 의협에 건의

집행부에는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서울시 돌봄 시스템 마련 채택



서울특별시사회 대의원회 제78차 정기 대의원총회 의무·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이상목)가 재적 대의원 42명 중 29명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오후 7시30분 서울시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3년 동안 고생하신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저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할지 현명한 논의를 부탁드리며 이번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의사회가 나아갈 미래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서울시사회 회장은 “3년 동안 서울시사회 회장으로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임기를 마무리하지만 앞으로의 료계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의무·홍보분과위원회는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 건의 안건 처리결과 보고 △의무·홍보심의분과 집행부 2023년도 회무보고 심의 △의무·홍보심의분과 집행부 2023년도 결산보고 심의 △의무·홍보심의분과 2024년도 사업계획 심의 △의무·홍보심의분과 2024년 예산(안) 심의 △각 구 의사회 건의 안건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23년도 결산과 2024년 예산안 심의는 같은 날 열린 사업계획·예결산 심의분과 위원회에 위탁 심의했다.

이날 각구 의사회 건의 안건은 총 55개가 올라왔다. 이 안건들은 총 18개의 안건으로 흡수·통합 지구 수정되어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사회 집행부 건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의협 건의 안건으로는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회원들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 마련 △환자 편의를 위한 선택분업 시행 △보건소와 산하 보건지소 진료 축소 방안 △2024년 예방접종 인상 및 접종대상 확대 △의협과 서울시사회 정책이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 대변인 선임△의대정원 증원 폐지 △공보험 진료 소득 세제 혜택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처리 대책 마련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 마련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대상 기관 확대 △동네의원 경영활성화 방안 마련 △건강검진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처방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병원업종 리뉴얼 등 총 18개가 채택됐다.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건의 안건은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시와 구의사회에 기반 한 서울시 돌봄 시스템 마련 총 2개가 채택됐다.

의사신문

의사신문 광고문의 (02)2634-9290~1

ILDONG 일동제약

고혈압, 고지혈증
동시치료
Want 하세요?
One 하세요!



텔로스톱플러스^정

Telmisartan/Amlodipine/Rosuvastatin

40/5/5mg, 40/5/10mg, 80/5/5mg, 80/5/10mg

- 혈압 강하 효과를 더해도 One¹
-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시에 치료해도 One¹
- 텔미사르탄, 아미로디핀,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처방해도 One¹

1. 제품허가사항 (2018년 7월 기준)

텔로스톱플러스정(Telmisartan/Amlodipine/Rosuvastatin) 40/5/5mg, 40/5/10mg, 80/5/5mg, 80/5/10mg

전문의약품

[효능·효과] 이 약은 텔미사르탄/아미로디핀 복합제와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에만 사용한다. ○ 텔미사르탄/아미로디핀 복합제 - 아미로디핀 또는 텔미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 로수바스타틴합승 -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 복합형 고지혈증(type IIb) : 식이 및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식이요법의 보조제 2. 동형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식이요법이나 다른 지질저하요법(예:LDL 분리반출법)의 보조제 3.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지연 4.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 (type III)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 5.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 :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 만 50세 이상의 남성 및 만 60세 이상의 여성으로 고감도 C-반응단백(high sensitive C-reactive protein, hsCRP)이 2mg/L 이상이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예 : 고혈압, 낮은 HDL-콜레스테롤치, 흡연 또는 조기 관상동맥 심질환의 가족력 등)를 가진 환자의 뇌졸중에 대한 위험성 감소,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성 감소, 동맥 혈관재형성술에 대한 위험성 감소 **[용법·용량]** 이 약은 1일 1회 1정을 식사와 관계없이 물과 함께 복용한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예 :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약은 성인에 한하여 투여하며, 투여 용량은 텔미사르탄/아미로디핀 복합제 및 로수바스타틴의 효과 및 내약성에 근거하여 각 환자에서 개별화 되어야 한다. 텔미사르탄/아미로디핀 복합제와 로수바스타틴 단일제를 병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복용의 편리함을 위하여 이 약(개개의 주성분 함량이 동일한 복합제)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TAR-EX01-1807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 변함없다”

당선은 현 사태 바로잡으라는 ‘명령’...“박인숙 후보 영입해 대국회 활동했으면”
의협의 로펌 수준 법률서비스 제공 약속...변협 수준 강력한 자율징계권도 필요
보수 정당 몰표 안쥐...개혁신당 지지 의사 밝혀, 박민수 차관의 대화 제의는 거부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현 사태를 분명하게 바로잡으라는 명령이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당선자는 지난달 2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 중 가장 먼저 이행할 공약은 예상대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외과 패키지 정책’ 저지를 꾀했고, 의대정원이 학교별 배정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재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망상’이라며 반드시 원점 재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박인숙 후보를 ‘삼고초려’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영입해 ‘대국회 활동’을 맡기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원 보호에 앞장서면서 무엇보다 의협의 대화원 법률서비스 수준을 로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또 의협이 변호사협회 수준의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갖게 해 부도덕한 회원은 과감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의사들이 과거처럼 보수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진보정당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의료계에 보탬이 되는 후보를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신생 정당인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선출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당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증원 증원 사태로 인해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됐지만 임 당선자는 “한 번은 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의료계에 대화를 제의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해선 “대화할 이유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망국에 빠트린 책임자들에게 대한 경징이 아닌 파면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Q. 당선 소감과 당선된 이유는?

A. 평소 선거라면 굉장히 영광스럽겠지만 지금은 전혀 기쁜 상황은 아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공의부터 중증희귀질환을 진료하는 의대 교수들까지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데 정부는 의사들을 모욕하며 미래의 꿈을 산산조각내는 상황에 유례없는 투표율과 지지를 보내 주신 것은 전공의, 교수님, 봉직의, 개원의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사태를 분명하게 바로잡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Q. 선거 공약 중 가장 먼저 이행할 것은?

A.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외과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다. 이후에는 수십 년간 누적된 의료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것이다. 매년 대의원회 수임 사항으로 올라오는 문제들 그리고 의협회장 선거공약으로 올라오는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치겠다. 특히 뛰어난 법제이사들을 위촉해 의협의 대화원 법률서비스 수준을 로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Q. 다른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앞으로 의협 회무에 반영할 공약이 있다면?

A. 박인숙 후보님이 의협에 대해 “현재 관련 법안을 어느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지, 또 어떤 제정 단계에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 그래서 결선 투표 직후 바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Q. 의대 증원은 학교별 배정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원점 재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주장이 있다.

A. 그런 이유로 원점 재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건 정부여당의 망상이다. 교육현장에서 절대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장 먼저 교수들이 반대한 것으로 생각하며 교수들의 의견을 경



청해서 회무에 반영하겠다.

Q. 의대증원 증원 이슈와 관련,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의 협력을 이끌어내 의협의 품안으로 끌어들이 방안이 있다면?

A. 그동안 의협이 개원의들의 의사만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역대급 투표율과 지지’로 당선됨으로써 정부가 폄하했던 대표성 문제를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전직역의 회원들이 큰소리로 말씀하셨다.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을 할 것이다.

Q. 이번 선거 역시 총 선거인 수가 전체 회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의협의 대표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A. 회비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투표권을 주거나 의대생들에게도 준회원 자격을 주는 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협의 살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다. 변호사협회의 경우 개업 변호사들의 현황을 모두 신고해야 하고 회원들의 징계권까지 갖고 있다. 의협도 회원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라 부도덕한 회원이라면 과감히 탈퇴시켜 윤리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Q. 제42대 집행부 구성의 원칙은?

A. 능력과 열정이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인재들을 찾을 것이다.

Q. 타 보건의료단체와 관계 설정은?

A. 필요한 부분에서의 협력은 이어갈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의사들은 더이상 보수정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할 분을 증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특히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선출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당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계에 대화하자고 제의했는데?

A. 집에 갈 사람과 대화할 이유는 없다. 이번 사태를 야기해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트린 책임자들을 파면해야 한다.

Q. 비대위에서 논의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이어갈 생각이 있는지?

A.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만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선택지가 별로 없을 것이다.

Q. 개원의들은 이번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A. 어차피 개원의가 파업해 봐야 참여율도 높지 않을 것이니 후방 지원만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의협의 재미없는 투쟁 방식,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애국가, 연대사, 구호 등을 외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할 것이다. 투쟁도 정말 회원 누구나 참여하고 싶도록 진행할 것이다. 총선을 결단낼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개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직을 5번 연임하며 98.4%의 압도적 지지율을 받았다. 한편으로 안정된 회무도 펼쳐 저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떨쳐내며 많은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압도적 성과를 내는 회장이 되겠다. 배준열 기자

강남구궤, 총선 후보와 ‘의료정책 전달식’ 개최

강창희 후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서명욱 후보 “의료시스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성”

강남구의사회(회장 맹우재)는 지난달 26일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창희 강남구를 후보(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와 국민의힘 서명욱 강남구갑 후보(전 강남구보건소장,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와 차례로 ‘의료정책 전달식’을 개최하고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료정책 전달식에는 강남구의사회 측에서는 맹우재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구형진 감사, 진옥현·

송정환·박현수·노복균·심동석 부회장, 김유석·한재욱 총무이사, 유민재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외과 패키지 정책” 강행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이다. 자발적인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을 억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현재 의료계의 분위기와 입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강창희 후보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원인은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추진에서 기인한 것으로 원점 재검토 등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의대정원 정책 수행을 기대하며, 향후 국민적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명욱 후보는 “의료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의료계 또는 정부의 정책 영역만이 아니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달라 대립하고 있지만 ‘국민건강권’ 수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해결책을 찾으면 타협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당 후보로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을 타결하는 데 기여하겠다. 일단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해결책을 만들어 내겠다. 더 나아가서 의료현장에 산적한 근본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홍영준의 공릉역 2번 출구 <101>

말 없는 좋은 스승(無語良師)



홍영준

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여러분이 내 몸에 메스를 대는 그날이 바로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호스피스 병실로 찾아온 의과대학생들에게 62세의 말기 췌장암 환자 리허전(李鶴振)은 이렇게 말했다.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에 콧줄까지 콧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몸을 의대에 해부용으로 기증하겠다고 결심한 터였다. 자신의 육신을 가장 잘 보존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실습하도록 해 주고 싶었기에 그는 모든 항암 치료를 거부했다. 타이완의 츠치(慈濟) 의대에서 있었던 일로, 이때 병실을 방문했던 의대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해부하게 될 분을 생전에 볼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한 셈이다. 이 인터뷰는 동영상에 담겨 해부학 실습을 앞둔 의대생들이 숙연한 다짐을 하도록 만드는 귀한 교육자료로 쓰인다.

〈아주 특별한 해부학 수업〉(시대의 창, 2019)은 타이완 츠치 의대 해부학 교수인 허한전 선생의 생생한 경험이 담겨 있는 책이다. 리허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죽은 자의 인체를 해부하면서 오히려 생명 존중을 배워가는 의대생들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준다. 이 책에서는 흔히 ‘카데바(cadaver)’로 일컫는 해부용 시신을 깎듯하게 ‘시신 스승’이라 표현한다. 실제로 츠치 의대에서는 카데바를 공식적으로 ‘無語良師’, 즉 ‘말 없는 좋은 스승’이라 부른다. 이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해부

학 교육은 단순히 의학지식의 습득, 그 이상일 것이 틀림없다.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나 〈탱자 가라사대〉 같은 시사 풍자 코미디로 1990년대를 풍미했던 개그맨 김형곤씨는 2006년 심근경색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그가 숨진 지 1년 8개월 만에 두 번째 장례식이 거행됐다. 그는 생전에 가톨릭 의과대학에 시신 기증 등록을 해둔 상태였다. 따라서 사망 직후 연구용으로 활용된 그의 유해가 1년이 훌쩍 지나서야 마침내 가족들에게 인도되었기 때문이다. 시신 없이 치러야 하는 첫 번째 장례식과 의대 실습 과정에서 조각조각 분해되는 육신, 그리고 한참 뒤 다시 한번 가족들을 슬프게 하는 유해 장례식.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면 시신 기증은 어지간한 결심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2022년 가을, 세상을 떠난 김동길 교수는 평생 일해온 연세대학에 자기 몸을 기증했다. 이미 사망 11년 전인 2011년에 당시 세브란스 의료원장 앞으로 보낸 육필 서신에서 그는 시신 기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장차 본인 사후에 자기의 육체가 의대생 교육에 쓰이길 바란다는 서신 내용 중 마지막은 ‘누가 뭐래도 이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로 끝난다. 정말 어려운 결심이었기에, 나중에 혹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짐은 비장한 각오로 보인다. 김 교수의 시신을 이용한 실습 혹은 연구가 이제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만 스승의 몸을 대하는 연세대 의대 사람들의 마음가짐 역시 비장했을 것이다.

이쯤에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최근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 이슈를 둘러싸고 연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의세’ 실언을 포함해서, 막말에 가까운 박 차관의 무수한 어록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의사들을 경악하게 만든 건 해부용 시신을 학교 간에 공유하거나, 정 모자라면 수입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 소위 ‘카데바 망언’이다.

“Cadaver 실습으로 비로소 ‘생명의 경외’를 체험하고, ‘인체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기에는 학교는 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Cadaver 실습을 시킵니다. Cadaver 실습으로 바로 ‘바람직한 의사’라는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얻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사다운 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입되는 Cadaver는 무연고 시신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암시장 범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발 정부에서 Cadaver 수입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위원장을 역임한 이무상 연세대의대 명예교수는 의협신문 등 의료계 전문지들을 통해 박 차관이 시신 기증자에 대한 경외심이나 존경심은 전혀 없고 그저 카데바를 물건 취급, 기계 취급한다고 연일 성토했다. 여기에 연세의대 출신의 맹호영 선생 등 장차 연세의대에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시신 기증을 서약한 분들도 가세하여 학교 간 시신 공유의 부당함 등을 지적하며 격렬한 항의문을 냈다. “저희는 실습 후의 시신이 얼마나 피부,

근육, 신경, 혈관, 뼈, 어느 하나 겉에서부터 속까지, 두개골부터 발끝까지 성하게 남는 것이 없는 줄 가장 잘 알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는 믿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가치 아래 모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시신 기증을 약속한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한 케이블 TV에서 우리나라 법의학자들이 나와 대답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법의 인류학(forensic anthropology)’을 전공한 한 분이 자신은 장차 ‘시체 농장(body farm)’에 본인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엔 없지만, 시신의 부패를 연구하는 이런 곳에 자기 몸을 기증하겠다는 믿기지 않았다. 사후에 어떤 세균과 어떤 벌레들이 인체를 어떻게 썩히고 분해하는지, 시간 경과에 따라 시신에 나타나는 온갖 현상들을 알아봄으로써 법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말 없는 좋은 스승’의 길을 자원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는 듯하다. 종교의 힘이거나 앞서 간 유명인의 선한 영향력 때문일 수 있다. 생전에 서약한 분들의 고귀한 뜻이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 왔을 때, 여전히 그분들을 좋은 스승으로 보는 시각과 그저 실습용 비품이나 기자재 정도로 여기는 시각이 공존할 수 있다. 그 말 없는 스승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의사들은 당연하겠지만, 이제는 관료들을 포함하여 의료계 중요 정책 결정자들 역시 시신을 좋은 스승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좋은 의사가 길러짐으로써 각종 보건 의료 정책을 펼치고 수행할 인적 토대가 튼튼해진다면 그 또한 시신 스승들 덕분 아니겠는가.

의협 비대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 만나야”

“전공의 복귀 방안 강구해야... 여러 의료계 직역과 만났지만 입장 차만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협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 행렬이 이어지는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날 것을 요청했다.

김택우 비대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추진 발표가 촉발시킨 전공의의 자발적인 사직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난

25일부터는 의대 교수들까지 자발적인 사직의 행렬을 이어가는 등 계속 악화일로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료공백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해당 당사자인 전공의는 물론 동 상황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1주간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여러 의료계 직역과 정부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서로 간의 큰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가시적인 진전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



황이다.

실제로 최근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의간담회에서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각 대학 배정에 대한 철회 없이는 현 사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만약 철회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택우 위원장은 이같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소속해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준열 기자

디지털 의사신문에서도 PDF로 의사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회비 납부회원 명단(특별분회)

회비 납부 기준 : 2024년 2월 29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손희승 김의진 이정환 서형주 허재형 고재룡 임준수 김우재 김선웅 나유진 최병길 이도상 최종윤 최준일 하승미 한대희 안창호 김두레 김장용 김정수 김태규 박준선 배수연 배자성 이은지 유니아 오순남 김성원 김수환 박경호 박시내 선동일 박홍민 박주현 이종인 임성훈 강동우 김남우 김대진 김태석 서정은 문미형 김예니 박철휘 박훈석 양철우 이한비 정병하 정정임 홍서연 안국진 김호균 김형진 김성현 김경수 강봉주 김도연 변용수 김현승 이철 문석환 오정석 김범수 박미진 이성학 이아원 이연수 정찬권 최영진 문형우 방석환 배웅진 이지열 이성종 양성철 강준 홍성후 강병수 고현선 김미란 김오영 김채원 박인양 박정운 박정현 신인혜 서병규 주지현 김경수 김철민 최창진 최환석 전윤희 이동현 임송원 정재은 옥진주 김지현 윤건호 성연은 박승기 박경신 박휴정 이해진 정소영 한인수 허재원 홍상현 김연실 송진호 최규혜 홍지현 정운지 최윤희 손병철 이관용 장기욱 정미향 황병희 구자성 양동원 유상원 이민환 이정환 이한빈 원상은 박재성 최종영 이관성 한건희 김진성 이재욱 최윤진 허수영 홍수빈 황인선 오득영 전영준 최장연 배소영 안문배 여도정 오문연 윤호중 이인경 오용석 이해진 정낙균 정대철 조빈 박재명 윤승규 이인석 장정원 조영석 조영욱 이연희 김성훈 오지훈 신승한 이석 민창기 민기준 민경일 남호형 김희제 광대훈 민진수 이선우 이성은 이정연 이종욱 조석구 지수영 김규환 김석찬 김아란 권수진 이진국 김승준 김양수 하승균 정양국 임영욱 인용 이효진 안재훈 방청원 조류경 김영훈 조성현 김상일 김만수 권순용 광동호 고영일 고명섭 채정호 이창욱 유재현 박형철 김훈석 이지현 박영민 김영호 한재호 채효진 제갈동욱 정진 이종미 유인영 정지환 박연준 김용구 김명신 권우재 이종인 강모열 홍숙희 강진형 최근영 조우람 오은지 이준엽 김재권 이현준 최정희 김영균 윤순규 함은재 <이상 230명>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강원경 조진희 김현범 이희연 한은지 이화성 유지현 이자영 송기호 백종민 정대영 김태정 원선재 김중호 한지환 고은실 김성근 문정일 이동환 정성진 전진영 김기원 권희정 사영조 옥선명 김태은 최세웅 우영섭 김진영 장지영 최원석 장정경 왕성민 박소영 조정기 서연주 문수진 길기철 이수영 <이상 39명>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창환 이용석 김정은 홍재택 박해관

유도성 민기욱 이정민 강훈은 진성수 신종원 송승운 김동진 윤현지 황정기 이시원 박민현 박종경 최승혜 김세원 송현석 김태형 김범준 이준석 안세하 장상아 최승필 조성진 정승은 김미형 김병수 이정민 <이상 33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성 김수영 김지운 배상혁 윤신희 이강숙 이성범 이우영 임현우 정연준 홍승진 신의철 권영대 김석일 김성운 <이상 15명>

■강남차병원

이경상 한상원 조성우 박정민 송우선 김유리 정용욱 박원순 김문영 송승훈 김지원 김민경 김지연 김수현 윤찬석 최수현 홍민지 김동석 김희성 김병식 한유정 고유라 이경진 노동영 박희진 최준식 차동현 김지혜 이학천 김유신 김혜옥 김명주 유은정 허윤정 조은혜 박성운 박원근 <이상 37명>

■강동경희대병원

유선인 정승준 김현철 정수웅 조성신 양근혁 정웅 손일석 권정미 하승수 이우인 최천웅 박윤영 주유선 진욱 박세웅 문수연 신재호 남승현 김동환 하기용 전정원 김대현 백경아 이상훈 박다혜 한태환 박진경 박석우 양형인 <이상 30명>

■강북삼성병원

김민성 오승민 박용민 최형경 이형안 유영진 김수민 박지수 김은섭 이민혁 안승민 강지연 유은주 나진석 조수민 전선우 권승제 이재홍 김광연 이서은 정연태 홍준표 정수진 윤성진 박수민 한상규 광지희 김현아 최효인 이승재 김지용 조경은 정환태 조용균 손정일 박동일 이성호 박정호 윤주희 최영환 심정연 정혜림 김덕수 신현우 오갑성 김규남 김준규 김윤지 박용우 김화영 전우규 김민수 정진숙 이원철 김원술 한복순 국신호 함수연 홍현표 송수정 공민귀 김범수 오태운 최은완 김현숙 양지현 현영울 김향 원유삼 문희수 정필욱 선우준상 윤원대 서범천 강진호 김준모 강재현 조은아 김기원 김성재 김은진 김윤신 이선민 여현철 전유진 김희준 김보미 황규원 김철환 이은정 성은주 배예슬 백이선 윤지섭 박미숙 권혜수 차경수 김철중 오원자 윤경은 이선진 홍성우 김정진 김서연 이원영 이교원 박세은 김동훈 정재용 주관중 권도희 채승완 문지혜 이혜빈 조미희 김윤홍 안중경 김승엽 김계현 최영준 김원석 김수정 김영환 임시영 길현일 송재욱 박수홍 김형욱 조성민 나지웅 이성열 정경욱 권재우 김흥대 손병호 조은혜 한상국 이상혁 이경철 백정환 이용택 조성준 신현규 박용준 오강섭

박효순 권민정 정다운 박재형 김유진 임정택 신동원 전상원 신영철 안지현 박재선 조양환 송윤아 <이상 158명>

■건국대병원

위명철 문다영 조민웅 한석현 우영제 안소현 김정환 광동원 김태진 손인숙 전유성 조준 김준석 장성환 백진희 황대용 박경식 김평수 이양원 최용범 권창희 유승호 소경아 오지영 박혜원 이란 기현균 이상현 조현진 장하성 김범성 유승강 이정근 이선영 권소영 전홍준 김윤정 심은영 홍대영 이현행 신진영 최재경 임소덕 한혜승 이지영 고현강 이선주 김영준 문원진 이재문 이에지 김성협 최우석 백성현 김형근 신정은 김진국 신기철 최아영 허미나 김민정 임수빈 김다영 김태훈 황승하 지현근 양현숙 박정진 <이상 68명>

■경찰병원

오주형 강선구 김진학 주준범 장재석 이민상 유창민 김현숙 <이상 8명>

■경희대병원

이문주 한지훈 홍하린 김가희 장한 박준성 박예원 한수형 장영인 나현석 이준범 김미연 안예나 김민성 박조영 서지명 이효정 최홍철 허다연 이은주 김가영 이수정 김나혜 박중휘 이영운 권순오 박찬석 문준영 문경일 이정연 손영설 김도윤 김정민 유준열 최희운 이지현 이남표 김태은 오승민 박주인 최익준 여규동 홍재성 이상현 김보희 김희원 김영국 정철현 한길 우승완 김상진 박홍식 장우재 고재혁 신정욱 이정현 김대혁 이창주 이승재 박세환 김민성 백현재 김진형 방준휘 박준형 박민환 김나영 김민규 강대웅 류지연 노준희 김진우 김승주 이진동 이사비 이준학 우희경 이지민 이태웅 최우혁 현윤성 송한솔 한미영 정혜은 구회경 김경미 전숙 한진희 김미경 박성욱 강화자 홍승재 상현지 이상열 오승준 우정택 최정현 윤수진 최혜숙 손경희 최연석 광원건 정부운 이미숙 박정하 원장원 유재홍 임성빈 이아라 김성완 여승근 이종하 윤동환 심가양 김종우 채수민 선제영 김양수 이상민 신민경 권효은 안혜진 박명재 김지원 김태우 백종우 김진숙 김승범 이준호 박창규 유지욱 최만규 김대규 박대근 이효진 반건호 김동원 김상필 이길연 김용호 박원서 안형준 최정현 민선영 박선진 박민수 김범수 장혜경 윤수영 신정하 문서운 장재영 동석호 박혜연 소윤수 이진산 이상호 박봉진 최석근 김지은 유달라 황경진 우호걸 허성혁 박기정 안태범 윤성상 박예완 이규인 김기에 최수연 장승규 오성일 이성민 강경중 조성진 백종훈 박철희 유기형 이원영 이기영 이정희 서대근 최선환 배보승

송상준 김상훈 조운제 윤경호 김덕운 임주원 박계나 조영욱 김창주 홍일기 윤태영 허영범 <이상 197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송기준 김현정 김명근 한희철 조성원 이민구 송진원 김현수 윤영욱 최재욱 정승원 박성훈 김현호 김창섭 김동현 광재현 박현진 황원규 김우성 신현주 김혜연 우주현 오은지 엄정원 조선범 백승희 민재용 손상호 노연서 김재호 이현수 권유현 김병준 이대욱 박소현 박선정 강경훈 장재은 고진우 서보훈 김지영 주영신 최재훈 송원석 이동한 김태성 오덕균 홍주영 박찬 윤인재 구도윤 윤유경 박지수 홍수현 정소현 김한호 오나원 조승희 김보현 이종성 최바른 황교선 손세욱 김재중 장태영 이서준 신승민 유강훈 송창민 박슬기 임동균 안민수 배규현 송제준 박지환 임종찬 강관우 손상혁 김미진 박예령 김상운 박준오 박지원 박지선 이선우 오건룡 고봉호 이석영 최의경 조관형 최낙준 노태욱 이상진 김현구 김태식 박홍석 최성혁 박성준 조신제 송대진 이성훈 박유진 윤운선 임채승 윤수영 윤정 김하늬 조민철 여재선 김종한 은백린 이재복 장유진 김완배 최세별 김완준 강재승 민병욱 이선일 강상희 정진욱 조준민 주연욱 이일욱 이상욱 김우영 김용엽 김지혜 박평재 김효기 나영현 봉준우 지정현 이은성 송재준 이건주 김치경 오경미 고성범 김준형 이승훈 지수혁 백유상 이문수 양대식 정영미 신정호 오민정 정성호 동은상 한승규 김주한 김학준 강은영 정현강 용환석 공명훈 최상식 임병건 김혜빈 김효성 김정열 김백희 전이경 김세희 전지현 서상일 정재현 최재용 이종미 정혜나 송미진 강우영 박병수 강석 양승남 윤준식 이창희 장미영 안가영 김선미 박현진 이우정 김현주 박효진 남가는 류혜진 권영주 고강지 안신영 김지은 조은정 김성민 최진우 이주경 이지은 최경목 서재홍 장수연 정희진 최철원 최윤선 오상철 유은상 남궁윤 송관규 백세현 연종은 김대식 이대인 김낙환 전소연 이성제 김재선 김지훈 김효정 이범재 주문경 김승한 이영선 이운석 최은호 권찬미 이시은 강지민 노승영 나승은 나진오 변관수 김원식 김명규 윤지현 구태연 박재형 심재민 유철웅 주형준 차정준 조경환 고은지 임춘학 이선희 윤승주 유해선 신혜원 신현주 최종일 고재철 한병덕 정원재 이은주 길혜성 김병수 조상경 오세원 성현영 임선영 이규배 김윤기 김영훈 김소리 김미나 최혁순 이영호 전한조 배재현 이홍식 이재민 이강원 서연석 박계원 김은선 정창희 김경진 김창덕 이보령 전해정 김민자 김선빈 박성미 > 12면에서 계속

inno.N
innovate New & Next

전문약품

국내 허가된 TPN 중
가장 높은 ω -3 지방산이 함유된^{1,2,3}

ω^+ 오마프플러스원
HIGH ω -3 TPN

(ω -6 : ω -3 Ratio = 1 : 1)

국내 3상을 통한
안전성 확보

대조약 대비 혈중
EPA/DHA 유의하게 증가

타우린 함량을 통한
Nitrogen Balance 개선

References. 1. Clinical study report of [IN_CPN_301], 2. Clinical study report of [IN_PPN_301], 3. 오마프플러스원주, 오마프플러스원페리주 허가사항, 의약품 안전나라

Product Information 오마프플러스원주 [성상] 3개의 소실로 구분된 무색투명한 수액용 플라스틱 내부 백과 외부 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산소흡수제가 들어있다. 각각의 소실에 투명하고 무지 내지 미황색의 포도당 용액(B액), 그리고 유백색의 균질한 유헤인 지방 유제(C액)가 들어있는 주사제다. [효능/효과]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보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칼로리, 필수 지방산 및 오메가-3 지방산의 보급 [용법/용량] 환자의 지방 제거 능력, 질소 및 당 대사능력, 영양 요구상태에 따라 용량과 주입 속도를 결정하며, 환자의 상태, 체중에 따라 용량과 백의 크기를 결정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량원소, 비타민, 전해질 등이 첨가될 수 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것 2) 아나필락시스성 반응의 징후나 증상(열, 오한, 발진 혹은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투여를 즉시 중단할 것 - 자세한 제품 정보는 제품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inno.N
innovate New & Next

에이치케이이노엔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39, 서울 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6,7,8층 고객센터: 080-700-8802 | <http://www.inno-n.com>

231214 OMAP-INNADOI-03-01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회비 납부회원 명단(특별분회)

▶ 10면에서 계속

회비 납부 기준 : 2024년 2월 29일

지중대 김경진 금보라 김남훈 김신근
 장우경 김주형 이기형 김희영 윤영경
 박아림 조태형 오영주 김정우 조은혜
 백세진 황성호 이한영 심기춘 강현영
 박범진 김민주 고성은 정재승 김희중
 변정혜 조성범 이상현 함병주 한규만
 조철현 이현정 염지원 신다운 정철웅
 이세광 오영규 서경천 김보련 백승국
 이의중 이성우 김수진 손태혜 홍순철
 허준석 유영 박준은 김지혜 정재호
 이윤 윤을식 이주성 강성구 조현이
 안정석 심종민 김예슬 최성욱 이병일
 박건우 안성재 신찬희 박정율 박동혁
 박경재 김장훈 양재혁 이찬녕 조장은
 김병조 황서정 허주선 최영준 조혜진
 조하나 강신혁 박종훈 강민석 박기수
 박준구 한승범 최인철 정웅교 장우영
 김준현 남명현 박종웅 홍석하 장민재
 장기모 강전형 안효현 최지혜 남민정
 서수홍 김대현 손상욱 이영준 이승훈
 이승현 이낙우 오채연 오경호 엄준원
 나윤찬 송태진 장기영 서지아 서원희
 서민영 박종학 박종태 민경진 신재승
 최원석 홍재영 홍광대 현종진 태범식
 최훈 최정운 최정우 이종하 최윤지
 이주한 최병민 차대룡 지웅배 조한진
 조치현 조원민 정영결 김해중 최인영
 문성우 강영선 김성환 김진석 김지용
 김재환 김일환 김용현 김용구 김승영
 김세훈 김상대 김범준 김동휘 김도훈
 권현우 권순영 고영훈 김수아 염상섭
 장우영 이경원 이경민 김민수 김경중
 강민구 임도선 박길홍 유임주
 <이상 444명>

■국립중앙의료원

노호균 김민수 권준엽 전숙하 주영수
 진성찬 김미나 오병훈 김우식 신용철
 정영진 김성동 윤종현 나웅 송기현
 유원섭 김문정 이종주 오민진 신혜정
 한미연 박현수 김명수 전명욱 김소연
 이해련 고정인 오병진 차정민 편효준
 조하영 이승현 국형돈 최종경 이소희
 김성중 고임석 <이상 37명>

■김안과병원

유영주 백승희 한종원 최혜선 최문정
 조한주 정종진 장재우 이지현 이정명
 유영철 송용섭 송상률 황규연 백지선
 최다예 박새미 김형석 김한석 김철구
 김지형 김재휘 김용란 김성주 김병엽
 김대희 고정민 손경수 이윤곤 정홍량
 <이상 30명>

■노원을지대병원

전승연 서동우 김홍석 장삼열 윤재식
 추덕우 권오근 박주원 심영서 박동은
 조준현 김정아 노현재 나윤정 김형겸
 홍준기 양태훈 김동한 김민정 홍정주
 이태욱 박만실 김태은 박준영 정은선
 김상훈 김연주 전다솜 한경아 민경완
 김효정 정경연 문서일 민향기 최재웅

임홍일 박지영 허진욱 신정민 박나현
 서지영 은병욱 이은혜 정혜인 권용순
 김대은 박은주 곽재영 권소정 문태주
 박상민 안상봉 박영숙 오주현 박광범
 임유정 최효선 정혁달 김의중 이규영
 방수영 최재원 이정주 김병건 김용수
 임태하 이재우 이준혁 최재덕 김현정
 권길영 우정주 최윤선 안진경 김영준
 양승부 김태형 진소영 김덕호 조광현
 이동욱 김동희 강윤주 최성주 신지경
 이승진 권형주 배인석 좌철수 신제균
 김재훈 손희중 강정운 김진우 권예리
 최남홍 최종호 이주호 강희인 한태영
 유탁근 이종훈 이현경 두전강 안용휘
 심현준 박종석 민경희 김성진 홍성희
 안덕균 <이상 111명>

■대림성모병원

성진용 홍준석 김성원 이한
 <이상 4명>

■미즈메디병원

심정인 이수정 이수연 이성하 윤병엽
 오혜림 오정미 박준혁 신형욱 신장현
 서보름 이유경 최예철 오은숙 이유진
 이은혜 이화정 장영건 장은희 전진동
 채정혜 최혜은 황은주 박용수 정은하
 박성원 남승철 박선희 라지영 김현희
 김장일 김소윤 김성훈 김보형 김민형
 노영호 <이상 36명>

■삼성서울병원

박정호 추승호 신지은 유형섭 김성민
 이주환 김성년 김태호 허남진 윤도혁
 김현제 박민성 김상우 최한별 김성원
 최지홍 남경호 백채은 이진욱 유상길
 김동현 김지인 이동현 김영현 김시연
 김예영 노주연 박진성 양진욱 오승운
 김선규 유원열 한보영 강현정 조해인
 신민규 김채운 김태한 심현수 김민주
 정연주 배재희 신동민 김효정 강주호
 김미주 김성식 김성훈 김우섭 김운성
 박관현 김희연 백근호 주병현 유주연
 임석준 전준수 진유정 김도윤 임슬기
 이용덕 구재모 반지연 박지연 서유진
 곽소진 박재은 노형래 김정주 이정훈
 정인결 정주삼 윤은준 홍은빈 이태민
 원도윤 염아림 전우진 이경민 이수민
 이승아 권기량 금나래 김지용 배준희
 유현호 전소윤 박정용 손수연 김다솜
 조민연 김가영 김민지 김정웅 김태은
 박수진 이승찬 정연지 도미솔 박장희
 송준기 이주영 김진욱 류현정 박용만
 박정현 백지영 송수연 오가원 유성제
 이은경 강영진 김정민 이정하 이현석
 임해솔 박현기 서상훈 윤석진 이조은
 전세연 권지호 박준범 김경진 천수빈
 권혁준 전준모 신현주 이상훈 정영은
 손수민 손지연 최윤 류경은 박소미
 김진아 이유민 김진희 박경빈 김민음
 장은영 윤소연 김성미 이수인 김주희
 권순민 안선영 김수민 유수진 박찬우

박지은 방서준 최윤지 최수연 김나현
 김민지 양연진 하희은 홍준영 나재원
 윤수인 이유리 김성은 이재준 전병우
 이주홍 이주명 이종희 이종균 이정일
 이정은 이준혁 이정연 이지원 이인선
 이윤경 이유영 이우용 이승훈 이수연
 이수연 이정원 임유정 신상현 장혜련
 장준호 장자현 장윤실 장원혁 장성아
 이준행 장기택 이선호 임영혁 임소영
 임동희 임도훈 이현무 이풍렬 이지훈
 장동경 안수민 온영근 오수영 오세열
 엄상원 어홍 양정훈 양광모 이세훈
 안진석 유정암 안소윤 안명주 안강모
 심우석 심영목 신경정 김민선 안현주
 이경중 전병준 이상철 이동운 이남용
 이규택 이규성 이교원 우경인 이경태
 유건희 윤진영 윤세창 윤성현 유홍석
 유진수 유준현 유종환 이성원 이광혁
 최수주 전경만 최철훈 최진오 최준영
 최정석 최윤호 최윤라 표홍렬 최승혁
 하상윤 최석주 최병욱 최문석 최두석
 최동철 최동일 최기홍 최연현 허경민
 최혜림 황지혜 홍승봉 홍성노 허희재
 허진석 허준 최홍 허규연 진상만
 함돈일 한주용 한종철 한정호 한인웅
 한부경 한덕현 허우성 정만표 정철원
 정진호 정지선 정정운 정재훈 정유숙
 정우경 최규성 정명진 정현애 정두련
 정규하 전황균 전홍진 전평 전소현
 전성수 정병창 조익준 신동현 지재환
 주은연 주성욱 조희연 조진환 조지운
 정치량 조준훈 정한신 조은운 조용범
 조영석 조수진 조성원 조선영 조덕
 채병주 조중범 강미라 김영근 고장현
 고은영 고은숙 강철인 강은숙 강원기
 고재훈 김민용 고저스틴상욱 강경아 현주경
 최경진 조민경 정신석 이해원 이재경
 강세웅 김경문 신영아 김선욱 김석주
 김병준 김병기 김덕경 김다래 고재욱
 김규리 권은진 길은미 기창원 권현철
 권정이 권오정 권기영 곽금연 김기현
 김영근 방유정 박민정 노준호 김형준
 김지은 김준표 김주원 반지은 김원태
 송주혜 김보람 고명지 고령은 고광진
 강노을 김주연 이경호 김영호 최진호
 최나연 조인영 정재훈 이현우 이유빈
 성지희 이보람 송병근 윤소정 유규상
 원여경 오세진 양미선 안지현 신선혜
 박성구 이슬기 박택규 김선희 백민기
 백경란 방오영 방사익 박희철 박홍석
 변재경 박형두 서대원 박치민 박진성
 박지혜 박주경 박재범 박윤아 박연희
 박혜윤 성기웅 신동욱 송윤미 송완
 송영빈 손희정 손영민 성현환 백용한
 성세인 박성지 설호준 서지영 서정민
 서우근 서연림 서성일 서상원 성지동
 김경선 김태중 김찬교 김지훈 김지혜
 김지은 김종원 김중수 박승정 김정선
 김혜성 김재현 김재준 김은상 김은란
 김은경 김윤경 김예진 김종만 노정래
 박광보 박경아 박경민 민주홍 민양원
 민병훈 김현수 문구현 김현영 남석진

남도현 나수진 김희철 김희진 김홍범
 김호중 박승우 문승환 최창완 홍현명
 하창민 김지수 김원지 서준형 김한솔
 최혜령 정제원 강민채 김민지 박혜민
 전성연 황성순 이종훈 이충언 곽신형
 김두리 강선영 최혜원 김창근 성정호
 최영해 채호창 김세준 장성운 안성효
 이은진 조성준 오시원 허무형 임정섭
 김효빈 이건영 김선영 전지훈 최건국
 최은정 최재영 조현진 김민정 신지은
 이준호 정예지 조성욱 현지연 신용훈
 양진영 김민하 강민서 구교원 신아름
 정진운 최광준 배효은 신다운 오승태
 윤지환 이은혜 하종목 심준호 나윤주
 이호석 오효석 이선미 김종희 오현지
 우정환 이현재 홍파 이태훈 장정운
 금수정 김성혜 박준희 이다경 이영호
 임유진 장지형 조진환 전기나 이효진
 이수현 이상윤 신혜영 신지선 박성진
 김창훈 김지원 김운유 김명중 최태호
 장우석 이보경 백송이 배현후 김태세
 김민지 권우찬 김지윤 오로사 유지현
 임다운 조소현 김민형 김성미 송승민
 장민영 전호진 김대연 임윤주 이성진
 조정재 차지현 홍다위 현석민 조현
 김소래 김태운 남현승 송민종 안재덕
 김다슬 이해원 현수연 이윤정 이수경
 신정훈 <이상 596명>

■삼육서울병원

김준형 이준환 홍석준 최이레 장익준
 현충수 오준석 정태중 김상형 권단열
 조화량 오현진 이우주 권대영 오창관
 정용환 김효현 배지현 전현길 황용희
 류병주 하강욱 김윤희 이은영 박민숙
 서태연 이소연 소재완 이지훈 김비로
 하성식 박순희 김동휘 곽현정 이태순
 최문영 윤여준 박준 심재천 남태석
 정홍준 이미나 이지성 채두병 양거승
 정윤석 박준탁 김순찬 백승권 김세원
 곽재규 최선령 조재영 조욱현 정재일
 이준섭 유문빈 송봉근 조원희
 <이상 59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성엽 형진 김현제 이종엽 민경복
 박정규 유성호 김종일 신좌섭 박수경
 신동훈 최진욱 이승덕 김옥주 성승용
 홍윤철 문기업 양혜란 <이상 18명>

■서울대학교병원

서혜령 김민석 천현 강민상 윤준식
 이재준 정지홍 현용규 김지현 김성환
 임채영 권용진 손지훈 이진용 김하영
 곽형규 이나미 남미연 명지현 원규희
 박수희 윤재문 김수현 이은희 정승혜
 권성연 황서은 김주연 박준빈 나상훈
 박경우 한정규 양한모 이승표 조현재
 허문행 조은주 조수정 백우현 이상협
 윤제연 임종필 김계형 박준원 김유형

▶ 14면에서 계속



TOGETHER, WE CAN OVERCOME!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드렛은 하루 두 알 복용으로
24시간동안, 혈당을 안정적으로 강력하게 강하시킵니다



제품요약정보

전문의약품 | 396

[제품명] 가드렛® 정 100mg [성분 및 함량] 아나글립틴 100mg [효능·효과] 이 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 단독 요법 - 병용 요법 [용법·용량] 이 약은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 시 1일 2회 아침저녁으로 100mg를 투여한다.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신장애 환자 - 경증에서 중등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geq 30\text{mL/min}$):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 30\text{mL/min}$) 또는 말기 신장애(ESRD) 환자: 1일 1회 100mg 투여가 권장된다. 말기신장애환자는 혈액투석 시점과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금기] 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다른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당뇨병성 케톤산증, 당뇨병성 혼수 또는 전혼수, 제1형 당뇨병 환자(수액, 인슐린으로 신속히 혈당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환자)이므로 이 약의 투여는 적절하지 않다. 3) 중증감염증, 수술전후, 중증의 외상이 있는 환자(인슐린 주사에 의해 혈당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약의 투여는 적절하지 않다.) [신중투여] 1) 중증 신장애환자 또는 투석 중인 말기 신장애 환자 2) 설폰닐우레아제와 같은 인슐린 분비 촉진제 및 인슐린을 투여 중인 환자 3) 다음의 환자 또는 상태(저혈당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1)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 (2)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불규칙한 식사섭취, 식사섭취량의 부족 또는 식약상태 (3) 격렬한 근육운동 (4) 과도한 알코올 섭취자 4) 중증의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 중증 간장애 환자에서의 임상경험이 없다. 5) 심부전: New York Heart Association(NYHA) functional class I-II의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투여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이들 환자에서는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New York Heart Association(NYHA) functional class III-IV 환자에서의 임상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약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6) 급성췌장염: 아나글립틴의 시판 후 경험에서 급성췌장염이 자발적으로 보고되었다.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지속적인 중증 복통과 같은 급성췌장염의 특징적인 증상을 알려주어야한다. 만약 투여 시작 후 췌장염이 의심될 경우 아나글립틴과 다른 의심 가능성이 있는 약물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7) 복부 수술 또는 장폐색의 병력이 있는 환자(‘3. 이상반응’항 참조) [이상반응] 1) 일본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996명 중 198명(19.9%)에서 임상 검사치 이상을 포함한 이상약물반응이 나타났다. 주된 이상약물반응은 빈비 26명(2.6%), 저혈당증 20명(2.0%), 변질혈 양성 19명(1.9%) 등 이었다. 2) 국내 위약대조 단독요법 임상시험 2건(12주, 24주)을 포함한 분석에서 143명 중 70명(48.95%)에서 임상 검사치 이상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제조·판매사] JW중외제약 ※ 보다 상세한 제품정보는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1. 11)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7길 38 JW과천사옥 ■ 고객센터 1588-2675 ■ <http://www.jw-pharma.co.kr>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회비 납부회원 명단(특별분회)

▶ 12면에서 계속

회비 납부 기준 : 2024년 2월 29일

손희준 김정희 정혜승 조현재 조수환 임주원 강진화 오주환 조희경 장준환 우수중 김영선 이소령 한세원 박민선 강승주 광민선 강해연 최은경 송지현 양선영 윤대현 최수연 임선희 권혁태 정은경 서지연 김지영 민상일 장예림 박찬용 우정우 이신애 공성호 이한별 김홍규 류혜진 김우철 윤중기 한아람 이시형 권운용 김도균 노영선 박중완 김기홍 윤현경 강은혜 권우일 윤순호 허세범 김수연 이명수 황인평 배재석 김민영 김희수 우혜영 유신혜 박세훈 홍석균 홍서영 이미광 박지원 유승범 김민정 황도연 윤형진 지혜 정윤선 박희수 김민아 이현주 안유석 김홍석 김민범 신창호 장삼열 김세현 최병선 최승혁 강지훈 송상훈 김택수 장윤환 이지수 이정 최홍운 서민석 황지섭 이동호 김효준 이상진 박수진 김수연 이상연 이승복 고은정 이한상 박혜윤 이춘근 김윤직 조영재 임현지 신지은 이우형 오병모 김기원 김태우 최세원 윤석원 김정호 김성우 남가람 유석하 유용재 지상환 김정수 윤민수 최영훈 원재경 이한나 배정모 광윤진 고지원 김은나 고재문 김희승 김훈 이승미 강표윤 윤지선 권순일 한승석 김용철 이하정 김인호 김태민 이경훈 장영은 김태용 조연정 이창훈 박영식 최선미 조재영 광낙원 박지명 김중엽 고다영 고영일 김효철 박지현 김지성 나법세 이은경 김동현 이현주 권혜원 최자영 이수현 윤태진 윤정희 이동호 한지연 제한준 황현택 김지훈 이봉진 정지혁 홍기용 김세익 손석호 송미경 김우중 박지수 정근화 김정민 신정환 장해민 임흥국 이현주 나권중 이경재 성문우 정진욱 김용휘 김주성 박창민 이상민 이진희 변자민 정현 서동인 임석아 박중신 문형곤 이남준 한원식 장진영 정승용 하종원 서경석 김연수 김영태 조상현 정희연 정경천 박성혜 광철 서길준 윤정환 정진욱 박상민 조비룡 강건욱 정선근 방문석 전윤석 박희평 권오상 구진모 장봉순 구자현 김수웅 김정은 강현승 김승기 백선하 강창현 김경환 임영진 김명아 광영호 송정환 이영호 강희경 김이경 김기범 고정민 구분권 오승준 김만호 조구영 남현우 박교훈 허찬영 변석수 홍성규 김재용 배희준 유희정 윤인영 윤영호 조영민 오도연 박흥우 최성희 지병철 천기정 홍순범 박도준 김상윤 정진호 김미금 성정준 이재호 장미수 신형익 황호영 문제호 강승백 조나리아 김병관 이재서 김홍빈 임영재 김진희 신종환 이시욱 박선원 이재협 이준영 최지은 한호성 이원우 정숙향 박경은 김동완 도상환 이경호 권오기 오창완 임정 오주환 이태승 김진욱 류주석 이동영 김나영 장인진 신상도 서관석 이창현 천정은

박무균 박인규 오세일 최수희 김윤준 안용민 강용구 신종호 박준동 김기중 전종관 양한광 이은영 이유진 정현수 김지현 최종원 박찬욱 이규언 권준수 김기웅 김의태 박경수 주권욱 문우경 피지훈 광재건 문진수 이미지 박영주 서창석 김학재 민성원 박진호 김덕겸 박문석 박도중 김의석 최의근 배은정 김수진 박민현 이용석 김인아 김현영 김현직 김혜령 문경철 송은영 이마리아 이상형 신수 이성호 안순현 이정민 이해승 조성규 안요한 이윤종 이정렬 조정연 한혁수 이동연 홍준식 팽진철 최승홍 박완범 손환철 홍윤지 진호준 이정분 김용희 고현석 최세진 공고르 사라어치르 민인기 천동현 이태민 김한석 신영인 신찬수 유경상 이형기 황일웅 백남중 김현준 왕가은소래 정용우 장학 허호민 <이상 440명>

■서울아산병원

김성훈 광지훈 조현정 김재훈 신상빈 송동창 강세진 김유진 김동호 이수영 조용하 임현아 최훈일 이운한 최웅 최유진 김영송 정안규 김동원 김서연 윤조현 윤인아 오지혜 강현일 김동진 박상천 민재정 오소민 조주연 정진안 이주승 윤호용 이도경 어지수 송하림 김윤영 김진성 이석준 송관주 김지윤 김재린 김예나 권오철 황성택 박유경 박주희 장지형 임옥빈 안지훈 정정일 이창주 류수미 김윤재 한신애 이미영 김도형 이동혁 유해성 이신영 이은경 이재성 홍연주 이수훈 오수진 문정윤 정지영 최정수 김성은 김소진 김민경 이나현 장은비 성윤수 신정인 김정은 위성봉 강필제 현준호 최기준 조하혜 임소민 이철환 이진호 김시아 이상언 조성양 양소영 안정민 송종민 이승환 김영훈 김윤진 김고은 권혜지 국문석 윤재광 김영은 유병아 전상범 박성욱 박승일 송재관 김정훈 전상용 박수길 김효상 김순배 정의석 이하나 김수현 박진선 조영현 최보미 장선우 송상우 박재하 김재용 노성우 문은지 홍창기 김대희 박진훈 박승정 박덕우 남기병 김 준 김재중 양원석 김미진 장재원 강수진 강도윤 강덕현 신성 권혜은 고영민 선병주 김영학 김욱종 이하영 임석병 장태영 정진민 주상호 유창식 김민성 윤용식 노규정 박용석 박재희 박종연 송명희 김영일 조재원 백지연 이은주 장일영 정희원 지성환 이종원 김연빈 이종률 김안옥 문근배 박인자 박주은 오정아 장준영 서준범 김민현 신원정 최영아 이훈 이준엽 오지운 이병주 윤주영 윤영희 염호석 사호석 배선하 문예지 이주용 김진형 김중근 변재호 백정환 박지은 박소현 박성호 김현진 신용문 김소연 김성호 권보성

권동일 구현우 고기영 강준원 박선영 정진훈 이신화 이사라 원혜성 김준환 강옥주 김민석 홍승모 지승운 조해연 조정현 조의리 조영미 서현석 이나라 오태석 엄진섭 박창식 김형배 김은기 김영철 장세진 임정길 고현정 황규삼 하승일 최윤희 최병문 장화영 김종재 우철종 신여경 정기욱 정다운 성장욱 이희진 안보경 선우성 송준선 공경엽 송동은 백진아 박찬식 박양순 남수정 김지훈 정우식 송인혜 김경조 이성구 이단비 오동욱 양석균 양동훈 안지용 조형래 서동완 임영석 김강모 김가희 임호준 고경남 강성현 심주현 고재영 임영민 이재홍 이은재 이상암 김현진 이윤찬 구용서 이한주 황성욱 홍승욱 최재원 최원목 조성현 정훈용 장주영 권순억 윤대진 김언아 남궁정만 최진호 최은석 백은영 권보상 홍준표 한현호 최중우 조정목 정형화 김성철 이범희 오세호 염미선 박성중 김자혜 김경모 백재숙 한지호 윤지희 윤수현 신혜원 임재성 고태성 서세영 전재용 전민호 유종윤 김대열 고은재 최경호 김은나 김성운 정종우 이유미 이윤지 유명상 김민지 권민수 임형석 고경환 김규표 강윤구 최영락 조재환 이종석 광윤해 이무송 주성우 조을아 정석훈 이종선 강우석 서동우 김세진 김소원 홍석인 채보라 이종승 이재호 안신 박한나 류정민 김준성 조민우 유승목 이미우 장영진 박호정 이동운 문대혁 류진숙 이우창 이우진 박한승 원종현 문익준 전주홍 김상위 정준민 송진우 허진원 배균섭 한수진 지원준 임채만 이재승 조용필 심태선 한하얀 박소희 고윤석 최은지 최윤숙 이재환 이정희 이상도 박영규 이재련 이대호 윤신교 유창훈 안진희 서철원 장성수 박인근 정경해 박숙련 류백렬 류민희 김형돈 김태원 정영호 박철규 이학재 유준상 원은정 양진혁 성흥섭 김솔잎 이재철 최정필 장흥문 이정현 윤종희 안성백 기영준 홍용상 조형우 김성배 홍석경 박선영 박길준 구자은 김광은 김미정 김은희 김정순 강지희 남효정 최상호 박성원 박유란 박혜원 배서은 배성진 배인영 김홍규 김민재 송기원 안철수 윤영인 정동환 좌은경 하태용 경윤수 김건의 이민정 김성한 김양수 배성만 이상오 장의진 정용필 황신 민세희 고은희 고정민 안은주 김원배 나지선 박종열 이우제 조윤경 김병창 김원웅 성태연 김민선 정은주 이종수 이지영 이효정 장혜숙 최승호 이희진 최은정 윤인숙 유주노 유태경 손병호 서도담 문준석 김희정 장혜원 이인섭 유문원 오슬기 성바울 문덕복 김범수 조진원 고범석 이새별 이영진 이종원 정일용 권효정 김윤정 공충식 김원영 이우형 신익수 광봉준 민사홍 박귀숙 박상욱 박예중

손기영 송기병 이정아 이유나 전예원 한장훈 황대욱 고효정 김기훈 김상훈 손지민 최종근 최양신 채은진 김송철 정아영 임병수 이충욱 이상민 이동준 이덕희 양수정 양동현 정혜원 김미현 류정률 김초롱 이민석 진효진 권기현 김동하 김경훈 임지윤 전수현 조찬양 채아영 김이진 박영선 도경현 전민지 유정진 김장한 김소라 한기훈 김용만 조은섭 <이상 546명>

■서울직십자병원

이순혁 채동완 황석민 송정훈 이용대 서홍석 유길종 이혜경 정해일 전기평 황석현 최현경 신동규 조성철 <이상 14명>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정지봉 구보경 김경훈 김근우 김성환 오문영 유소영 조현승 손영제 조민준 이지영 유상준 양희진 송경준 박정환 김영아 김병재 김대우 채지원 박태연 허승철 이경원 장주영 황성은 강현우 김학령 한미선 채영준 장원모 이지호 이요한 신기철 김태훈 김민정 구대림 이정규 박혜은 오소원 임지민 김승빈 문민경 서인욱 박경석 <이상 43명>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안성재 김지호 신대원 한범수 김기홍 김윤희 윤하정 김지수 정환규 김민우 한송이 최수정 이우주 정하택 이종구 김준형 하정우 천승욱 최문관 김서진 김동현 이승주 윤태균 백송운 나상운 김주하 김양희 김세환 김서연 이윤주 윤은상 한영재 박수창 이원령 이윤서 정다해 김다훈 박용호 정원렬 김영진 한초롱 박지향 서민교 윤영락 한원호 서수민 김소연 이도희 김동규 엄태인 정정웅 조승연 김범순 박광희 문규탁 이진형 오유진 최하선 차태환 조영규 이영경 신명진 변준수 김영은 정선영 박철희 권유진 이동익 오주연 김성훈 장세연 김정희 황호경 권수경 한상문 박근홍 박현경 함은미 공민호 박진형 이신영 광문환 최동선 표창해 임대성 최수복 예성열 김한범 권정아 정상희 윤루비 강민승 황두나 한건희 정은진 박기현 이수형 송관영 오동현 천우정 이영은 최희승 이정현 박효원 류승아 문정은 위승범 함초롬 김수현 송숙희 전현정 이덕주 백나나 장지연 배준용 안미영 김태호 김현목 최병용 최재신 김장언 강나리 박혜원 정혜연 김석연 원경현 이주호 최재필 정유진 예혜련 최승권 이신우 이현주 조숙 염혜영 이은정 최유현 김다은 유혜수 박태환 허재혁 박상순 오단아 박기홍 최진교 이승현 연명진 이은정 신성기 김기천

▶ 15면에서 계속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회비 납부회원 명단(특별분회)

회비 납부 기준 : 2024년 2월 29일

▶ 14면에서 계속

유형근 김규진 배중권 이경덕 인지원
 유희진 부성민 오정균 신민수 고민수
 김수경 나은진 손진성 한종민 서재성
 박희동 김성년 이해우 심현보 장용이
 김종규 오주선 이상만 최현석
 <이상 174명>

■성애병원

장석일 조혁래 강유미 김은령 김지숙
 신우진 민철홍 이상혁 김호정 심규호
 강성환 박창한 조성진 정희석 김영진
 김배근 김장민 김등래 유지혜 서승표
 전호승 곽우해 등수선 이석배
 <이상 24명>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조우현 이재웅 이의준 노재경 박선정
 도연홍 김진훈 이정호 이재철 현민수
 박병원 이성진 박상준 김현조 김양기
 서유성 박노진 윤상철 박형규 이은정
 방덕원 오홍철 조재현 이민호 백예지
 황정화 홍성호 박구태 유재화 강민석
 장재철 최인호 진윤미 진소영 김동원
 이우령 박석규 박형기 <이상 38명>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서상준 성민경 양경아 오운정 이세훈
 이용재 임인석 최규영 강병주 민주원
 김종원 배병구 윤성보 이준철 정영주
 권양숙 박상현 주비자 <이상 18명>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호기 채예린 김혜민 홍준범 최민제
 김광현 조다울 정하경 강선영 김원휘
 이동욱 이현준 김주오 김소희 김은설
 방창배 오준석 김중현 박지수 서수경
 오철우 이해관 백지주 김태환 백지원
 김은환 심송주 임경호 임현호 김유현
 최서희 박희륜 오명준 김민성 김예솔
 김보민 강필권 김하정 박영훈 배지민
 오현지 이해민 이지예 강은별 이교선
 민소현 전태은 이승현 오희상 김경원
 이재용 김현규 김태희 양승호 김재연
 김자윤 김주영 정현택 곽승민 이유진
 정준호 이한철 조상원 곽문수 김대현
 남주연 성운제 이상목 주하람 국도연
 권영기 이민홍 이강토 최윤정 김은지
 송주상 제송현 김부용 엄영은 최서원
 최혜민 전진옥 백지원 김수정 이동규
 정연수 서연수 정다현 성해준 서혜린
 정연우 장현우 이주희 박중원 윤혜원
 노원석 조일 하병관 이상민 성다원
 최수연 이예린 이여진 이경림 윤혜수
 박종민 박승열 조성봉 이효정 이창준
 조건재 이석원 류해니 류예찬 구보현
 조진경 김도은 김관수 정세라 노재원
 신수근 정현우 이흥희 한정화 이종주
 최은비 정예준 최진태 우창수 최다운
 박희준 이상석 안성민 황보라 박준혜

강준구 이두영 원영호 조인성 유원석
 주요한 김정운 안성희 임은정 임수정
 한지윤 최영주 김진희 윤하석 염하영
 서동진 박하상 권성현 이상원 진현수
 배중길 조우종 박민호 최영조 최지윤
 오세영 박종필 김민수 홍성진 이형진
 김동준 이영한 허진 안성수 주승문
 백송이 임동진 정대철 정수운 윤정현
 곽진영 김진아 김승형 김민정 박지우
 오영택 원종운 최병욱 박준 이승구
 김은경 김명진 최원아 송호택 박중현
 이정은 최훈영 이상원 한승혁 오지혜
 서준혜 배지훈 이주연 이상준 정재영
 윤자경 신중후 박영진 홍혜영 장시환
 박해진 윤성환 최원일 배진경 이용준
 남궁기 신현주 김나영 이재희 이종희
 김어수 강성웅 심재용 강희철 인요한
 김찬형 조현상 신의진 안석균 김재진
 김세주 동재준 이은 정동혁 천근아
 강지인 석정호 박진영 이정환 이산
 김우정 이덕종 김민애 김소연 고유진
 정영철 조인희 윤서연 홍준택 임상희
 박종미 이수지 이상철 나동욱 조성래
 김용욱 박윤길 이지원 신지철 박진영
 조아라 이명환 김애희 문민음 박영환
 김은영 강희택 김신혜 이용제 권유진
 박병진 김덕용 여인석 김지훈 홍주영
 황윤정 양시용 황태식 장영빈 박수형
 김소윤 김한나 이일학 고경희 최주환
 정현수 최승준 박용정 원동주 임정훈
 홍기호 김희정 이지환 정성필 임승혁
 박유석 이준배 좌민홍 안지현 김덕기
 박인철 김지훈 박지훈 조성민 이민영
 김영숙 윤지열 이승태 윤경봉 이기영
 배선준 곽영란 김기준 오영준 신새암
 한동우 조연아 장철호 최승호 나성원
 최용선 김소연 유영철 구분녀 김용배
 이나현 김태민 이정근 성진실 이창걸
 금기창 민경태 이익재 위찬우 금용섭
 윤홍인 김준원 김경환 라세희 조재호
 용동은 송종욱 김현일 음다혜 조재인
 윤은장 김정호 이지원 임종백 배재영
 송재우 이경아 정석훈 김신영 박윤희
 윤종진 최종락 김승현 이혁민 변효진
 김은정 이민정 김신형 김현주 노고운
 이보라 이재훈 함성연 김정민 김현창
 김혜진 노현정 이반 박상준 이진우
 권지원 박광환 석경수 박훈 김승현
 정민 고일현 김성환 천용민 최윤락
 박관규 이우석 김영한 김현우 박건보
 문성환 김학선 최종혁 이무하 김건희
 김동규 정규선 조운성 문주형 최선아
 윤선진 김준형 박진오 김상호 윤소진
 김성훈 배상욱 김영태 한우연 정희선
 정복기 김형식 윤영현 최성렬 권준한
 윤순필 윤태환 정우석 정광호 김도현
 윤여권 박경현 조재용 조병우 박영창
 박시영 정세한 박준영 이병호 오원택
 한승환 박현호 진한빈 김석모 김정재
 정종주 고화희 황자원 이지혜 김현정
 정은주 이용준 박성현 한운대 배승준

이진석 유경종 이재근 박한기 허선희
 조민아 김선정 김임경 양승운 김유민
 김성현 김진경 이종민 안수민 박은정
 한대훈 이초록 국윤원 김근수 김상운
 신준재 이창규 장현준 신동아 김의현
 정현호 김용배 박정운 장원석 박은경
 하운 주동진 심규원 김경현 이재환
 구성욱 장종희 김근년 진동규 신정훈
 표원경 이승현 김정환 신유림 주현철
 이삭 윤영남 이성 김명수 박수진
 정진웅 노미령 최진섭 한석주 윤동섭
 오정탁 정웅운 김경식 이강영 형우진
 장항석 김재훈 정재호 김태균 강창무
 남기현 최기홍 민병소 허규하 박세호
 김형일 임진홍 이준상 황호경 강상욱
 이잔디 김승일 정기양 최항녕 권만재
 이선아 최재영 김지홍 이영목 정조원
 임주희 이순민 은영민 이용주 류병원
 정경배 최문석 김지희 김문현 홍승수
 최아림 이주희 오상호 김도영 오병호
 이상은 김중훈 박창욱 허혁 김종민
 어경진 김지예 신주연 지용우 배형원
 이상엽 김찬운 한승한 서석교 정다운
 이지현 이지은 김서라 강현구 이용재
 민지상 이재훈 김정철 김혜인 허혜원
 장진범 이준호 윤보현 이정운 공미경
 박주현 남은지 최영식 권자영 정윤지
 배성훈 김은주 인경 강정현 박형석
 전대영 허지은 한용규 최영득 양승준
 안유영 정연수 심남석 김용준 신승호
 호인걸 김주현 김다희 한지혁 임재열
 조형주 김성현 고운우 손은진 김창훈
 최재영 김세현 김경수 전제휘 홍현준
 김동우 조성수 윤미진 강원준 조승혁
 조호진 유민영 왕지영 박지수 권승연
 이시원 홍문기 황세희 박종원 김규현
 임형지 황상현 조재립 정현정 하정하
 손다혜 김교연 최민혁 이용찬 박정현
 김태일 김영삼 송영구 차봉수 강석민
 홍범기 박승우 채인혜 박중원 이수현
 하종원 강신욱 이문형 권혁문 이호규
 김유진 최동훈 김안영 박혜운 윤상철
 이유민 이인국 박슬기 황혜성 김남규
 원종욱 이재현 김성우 강민재 최은창
 한희연 박경미 홍원기 송승이 경태영
 박진경 장선호 김유리 이병권 안철민
 구남수 조영석 김병극 박수정 강신애
 엄재선 임현철 김중운 정지예 김승업
 신동엽 박희남 김지현 강영애 임의
 김혜련 박정탁 김태훈 이해원 김광준
 박재준 홍명기 김건민 김범경 정문재
 이상훈 이용호 최혜진 조재화 홍그루
 홍남기 윤영원 고영국 박형천 박정엽
 이유미 황희유 정지희 차태현 신혜영
 김범석 장혁재 김창오 유태현 조병철
 심지영 신성관 김중선 안상훈 이상길
 정준원 강은석 김진석 최의영 박성하
 박무석 정보영 최성화 이병완 이은직
 주영수 이은혜 안성수 김윤아 이서영
 김대훈 기민서 김현욱 정희운 김지형
 정해림 오재원 김용철 조덕규 천재영

신재용 이경화 우아라 김형우 박제욱
 이찬주 조재희 박석원 김다함 박운수
 김철식 정인현 황도유 이재승 조중현
 조익성 이승준 김자경 김민경 김가희
 김미나 김세은 김규 곽서연 임준열
 이준섭 오지원 이해연 김희진 지종현
 윤석용 지현영 채동우 김형범 김철훈
 김소현 박영년 홍순원 이상협 배성아
 안덕선 정택 정선재 윤진하 박은철
 김창수 김현창 이우중 이재면 신전수
 조남훈 심효섭 석재연 김미림 신은아
 최윤정 남지혜 구자승 윤선옥 김세훈
 김현기 김희연 김춘옥 차한 노지용
 박찬신 김미현 오은주 유은숙 권순성
 노태석 김영석 최영철 정요한 이성록
 이경열 유한수 서영철 김수현 민경현
 송승용 류철형 나한규 김원주 성민수
 윤인식 백우열 홍종원 이원재 이동원
 유대현 박단 정지명 이정금 문서진
 정민철 김가운 장성인 박영민 박승현
 박진우 김정은 방연식 백지원 허용민
 임혜지 유희태 이지민 이상규
 <이상 854명>

■원자력병원

김현우 권영민 오효동 송석현 장병주
 소재현 박수용 한재민 변재호 임헌
 김태수 문주현 김우강 홍성은 김지원
 장연 김승모 김브라이언 허예슬 강도균
 이진경 공창배 조상현 조완형 송원석
 홍영준 오애진 김혜진 이해원 전대근
 이용석 백은경 신의섭 성민기 유항중
 조승호 조성진 진성호 이지연 이청
 최용준 조민수 배근량 정금철 김미숙
 유형준 이수남 김홍일 한철주 김진
 김철현 정명아 나일일 강혜진 박수철
 김현아 김혜련 이소영 김서운 서현정
 유재현 김상범 문선미 김연주 장원일
 김동호 채성돈 노금엽 석희영 이수미
 임중섭 박수연 이지희 하정호 이창훈
 장용규 김건하 박주희 안 영 김문홍
 강지식 유상영 김법중 안혜진
 <이상 84명>

■이화여대 의과대학 목동병원

정기혁 조성봉 윤혁민 최지우 이진주
 최윤진 김지은 정한나 이은지 한유지
 김수진 윤석민 홍성인 김민정 강민정
 주미진 윤인영 최세희 김수민 김현지
 정승원 김나영 하희정 이지윤 김지현
 문선영 최은선 임선호 임지웅 백민혁
 강미나 신동렬 이재원 홍수지 전영진
 최윤형 이재희 이지은 김혜지 박대준
 이희성 김향경 이혜나 권형주 고영도
 이재길 유재두 이준우 정순섭 김지영
 이희라 서지현 배하석 한수정 이호운
 최혜영 문영철 이흥수 이상화 이혜진
 이지수 백인운 이선영 정혜경 이한아
 박준범 김승정 조영주 이경은 박소정
 이규형 한종인 김동연 이희승 백희정

▶ 16면에서 계속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회비 납부회원 명단(특별분회)

회비 납부 기준 : 2024년 2월 29일

▶ 15면에서 계속

김원중 이신아 김용일 임우성 박정준
이정화 신동우 김병수 장운경 한재진
이찬영 김현진 김유경 이정경 차은숙
김진실 문병인 이령아 정구용 김영구
이주혜 김청수 정혜원 김영주 정경아
김윤환 김미경 박선화 김보라 김건하
이로지 박은애 유경하 조수진 김경호
최선아 조혜경 허영민 박기덕 이향운
안혜선 박진우 김은희 <이상 118명>

■이화여대 의과대학 서울병원

유민아 김동엽 이채영 노주영 송숙연
김명수 이광훈 류인선 허담 문성하
한지원 홍소현 박수정 이경아 김충기
손여주 김종규 김지현 홍근 송승환
김선영 조영수 이형우 송은곤 송지선
전혜진 최정은 김수정 김남은 강병희
복진산 서동만 윤원재 박인 태정현
심경원 전루민 임수미 김태운 김광현
이정원 송태진 신승호 조재성 홍경숙
윤지영 한철 임원정 조도상 남은미
류연주 정지향 최유원 심기남 박미혜
윤하나 정성애 문혜성 김혜순 남상범
조민선 윤주천 <이상 62명>

■인제대 상계백병원

김규립 박형진 구분승 김동용 김동혁
김소희 김여진 김준석 박경량 강예원
배유현 조경환 박영근 김학범 이치형
최종원 김우현 정대영 정영찬 이동녕
김진 김수연 손한빈 임다솔 김시현
라준일 이석현 최효정 선한수 신다솔
오서운 오송희 유하린 윤규용 김효종
장성훈 황해정 강신욱 김형진 이희성
남규호 오진영 민선기 이윤건 이새미
이혜영 신윤정 공태용 주일석 김범기
노용준 이병두 김명신 배서영 손수인
최정윤 한태희 신보문 유수진 김형태
이운하 이수경 서예영 신은진 민지아
박광민 조현수 김중환 박근열 한성훈
임동주 이상석 신용운 유영진 손병석
이혁표 장유진 오주현 김동길 이우용
김병규 임윤희 유병훈 김현정 성낙희
김명환 윤상희 양승우 연준흠 원종철
이선영 김규남 박용수 김상현 고경수
남상현 김정민 신원창 박지영 최수인
나성균 변영섭 김광실 김백남 김민숙
류석용 조석진 최정환 김철 안재기
박용범 한관희 이동우 김기환 손보경
장윤영 성열보 정형진 염재광 장동균
송준형 김태우 이상림 구자욱 정주영
김신혜 박용원 김정련 백종삼 이유진
정승호 배병노 최미선 신형식 정선운
이재훈 오원혁 이지혜 김영준 한상원
전태주 정혜주 <이상 142명>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한동우 신세훈 장석환 염호기 강운경
박현아 김경우 김율리 김의창 이기재

<이상 10명>

■중앙대병원

박재현 장은경 양혁주 강동영 임동준
이연재 이동현 이근욱 윤형선 오정아
여선영 안광욱 성신우 서범석 방상운
박혜원 오세철 김서연 고재현 최길원
전진웅 유이삭 최양선 이제욱 강규태
서다빈 이현욱 이선재 김은 김건중
정승아 김나연 한지명 정민재 박정훈
신신혜 김인후 정인용 고영규 추민수
이재호 황서영 최영호 최계원 우동민
임준호 김재우 전지우 김도진 임희정
황지유 홍진우 허동규 최주현 조중현
정수민 박상민 최재형 강유진 남윤수
허정선 이원준 김민정 이정준 인재훈
오석현 김태환 손준익 김영욱 강동욱
구가은 추이슬 위충범 김인정 오경서
신종엽 이종태 김민경 김성희 박승용
오승하 박형건 방윤식 하동희 김민준
김승환 이소슬미 김남훈 조경미 정윤경
홍정주 최주혁 송민교 박진송 유용호
한지용 서민형 김정민 김민수 이장원
유청준 이경규 한승환 김홍태 박상언
최원열 김유민 김지영 박광희 정찬렬
최동화 명순철 조현자 강현 광미영
정혜령 고은별 김선아 김태완 이지호
김경도 백종화 신화웅 김지영 한경아
최진화 김동연 김희성 도재혁 정해인
김미경 안화영 박재용 오형철 최창환
김형준 김재규 김정욱 정재원 신현호
정윤재 김재택 정진원 이혜준 김정하
조수현 송정수 전해은 정재우 신종욱
김재열 김정은 오충렬 이준호 김동연
황인규 성무현 신정호 박규태 이왕수
이광재 김태호 구강모 김희준 박병준
차민재 이은선 박형정 박성빈 최상욱
김경우 김지택 안석원 문남주 김민주
장주성 최현호 박용숙 남택균 권정택
박명우 이정규 김종원 신현이 김두환
장문영 민현진 김경수 문석균 이세영
임영희 김민균 최혜원 송라영 박병관
이승은 최유신 김병규 박용검 신혜원
김서민 한수현 한승수 박광열 윤영철
이대용 윤신원 채수안 강신혁 김한구
이은주 김광준 태종현 최세영 장인호
김태형 이영석 심유진 고명진 이병찬
박승환 서성준 김혜련 이미경 이동훈
윤병일 남현철 이경재 김범준 함대용
김솔이 김성환 송광섭 이한준 황현찬
한덕현 민경준 문준기 김선미 이갑석
석주원 박귀영 석준 변윤준 기동훈
<이상 245명>

■중앙보훈병원

이재희 고영운 주홍준 윤태혁 신영빈
정진욱 박준우 김동하 김범준 이예은
강경렬 이재혁 안지환 진성 최우화
니빅토리아 송훈기 정호용 윤호근 이승훈

홍창의 이창훈 차승주 최석원 조필동
윤호현 김영배 이우승 강규복 여의동
서석인 이희동 최윤성 한문희 조학무
양영권 배희원 지혜민 박관호 김태완
양주철 이지혜 황덕원 김춘관 함신영
이동영 임영경 강효정 양희승 이승화
이원재 박재은 김규한 황진경 김지혜
김병욱 이근 이청우 <이상 58명>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세호 현진탁 조영탁 안중택 권준혁
진주옥 이창훈 송유석 송문휘 김한준
박세웅 김승희 황지송 김재희 조연희
이상준 이근상 박미성 박일인 탁현진
최수영 최지운 김현정 김경욱 서진실
강민정 송지은 김기범 김재형 서소현
유영주 최혜성 박세희 신동금 강민경
최성훈 조정래 김태희 심윤수 신태림
박재근 김도형 서유빈 정희훈 민양기
김병천 이홍석 이중서 손혜준 하은교
이혜진 광병욱 문신재 성대정 박혜인
박혜진 노용균 이재갑 유재명 고동진
조아진 한예슬 권승철 조탁근 한정훈
문승명 김창현 이호국 이승현 장용수
신호승 박성택 이호원 박현진 김정연
김형년 황지호 노규철 윤상남 김지훈
추옥성 김정은 전주현 천은희 조지웅
최민규 이아리 박성곤 서인석 이영구
이근영 장지원 이동진 문용석 신영주
정수영 송지은 이기열 박사현 양익
강태선 황숙민 이석현 송원근 박민정
정세리 이누리 김유진 김진배
<이상 109명>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정현철 전은지 함희범 조중현 전영현
장지우 이동우 윤동영 송원호 김태호
김철현 김지훈 김규석 구승호 김두만
이종영 이지수 박준호 김민정 김동현
한규록 이준희 오동진 서원우 박대균
김성은 전희중 신동호 오지휴 조병문
박민우 박세혁 김여진 이진현 신운건
서승인 박다희 윤송이 정철훈 정소연
장용준 김결희 임경택 문종수 황용순
박소영 손유동 김재석 김수진 김갑래
박진호 엄태원 이승진 홍성엽 송주연
박지영 한민제 김상석 김철우 송현호
김창우 현윤석 정현철 한태진 홍성준
강상수 이진서 황인홍 정원영 김수영
양대열 임지현 이진혁 <이상 73명>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이병철 한승범 윤재철 허준 김범수
이중욱 <이상 6명>

■한양대병원

유용진 이수연 신현식 김영환 안상민
위미림 김기연 강태훈 오현중 박진우
고재연 고지원 윤경서 정일운 고병민

우승희 이보현 최새미 이규진 김주인
길영은 배성환 김경운 권영준 김준우
조해창 허윤정 김대관 김홍일 권명건
정효찬 김지환 박성제 손지홍 박상현
박중규 김형석 박정현 김진현 박성훈
김지은 박민영 박동민 문소연 문세희
류성주 남현진 박승엽 김현수 김다경
김리은 예혜린 김문수 안향대 김채연
안우진 김근영 변상희 방다솔 김민재
김상운 김세운 김세훈 김민아 박병준
신아곱 김미선 국우람 박재성 진준혁
권준오 임소담 선경민 전은표 정환석
송중현 김준우 이기중 백종진 송정석
김주형 박시형 우창우 박정훈 정찬모
류현지 이동규 차혜민 유홍근 박은지
박예지 송기혁 송용백 강주성 강건
강리경 임지영 홍성진 남동현 김도현
홍원찬 이종현 정연도 장진현 이현석
권지수 손황규 심영훈 제갈보슬 조성실
서보미 김한솔 안중권 김동섭 왕형우
김아영 전종현 방신혁 김윤용 정주은
김성하 이원섭 백승훈 주경호 송선영
임경재 고현석 강지수 한영서 장혜진
이민진 이수인 이승아 이승연 이유정
이장훈 이주연 이준호 이지수 이지우
이항진 전동현 정성훈 정연우 정유은
조민석 조재형 조현재 최승운 한광욱
이지혁 이다연 김찬빈 조용일 박세운
장란숙 김지운 원태영 이상원 안자혜
박호섭 이주희 차치환 손준혁 나민균
양승 김여주 이건석 최지운 김인향
김현성 성정민 송여진 배준원 이창훈
하지혜 명재경 김유정 나재운 고벽성
김규남 최동호 박진석 엄지은 박진규
박계영 엄정민 노성원 최규선 조정기
금지현 이수진 최성훈 김천기 허란
장효준 박성오 이원준 김수연 이현
윤재훈 김유진 윤아일린 안성준 최해원
최한솔 전해원 이승현 박수정 백선영
김용범 이경미 김나영 유주영 김우현
권현운 김보근 김희령 정승교 소현수
김나영 권배주 이승우 박성화 윤초석
한정용 고신웅 민지희 정윤경 이준철
남보라 김지홍 국형돈 이영만 박진화
주민숙 김경식 최진주 박성실 국민철
정수 오석중 김용성 유경현 정은아
최수나미 손정식 김지현 임성민 정규환
최중섭 이상환 전재범 유대현 배상철
이수진 김승현 이우수 박시복 김동원
윤호주 태경 임한웅 김희태 김용주
김혁 박훈기 최충혁 백광흠 황정혜
최윤영 김동선 김태환 김미정 김덕언
김경래 고병희 손장원 호정규 김석현
김희진 하태경 이강녕 박성열 최찬범
임영호 안병규 황규태 이봉근 성윤경
전대원 박병배 이현주 이원무 오기욱
이진규 김정은 박정환 박동원 오재훈

▶ 18면에서 계속



풀베스트

FDA 승인받은 풀베스트주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 치료,
 FDA 승인받은 풀베스트주가 함께합니다



PLAZA

개원 이전
초빙 구인
임대 매매

광고 기본 규격 및 1회 광고료: 6cm × 3cm 6만원 / 6cm × 6cm 12만원
 광고 입금계좌: 신한은행 362-01-017925 (예금주: 서울시의사회)
 광고 접수방법: 전화 02-2636-1056~8 FAX: 02-2676-2108
 docnews@daum.net (수요일 오후 4시 마감)

병의원 임대 · 매매

★**병의원 최적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70
- ◎ 1층 실면적 76.2평
- ◎ 주변 신도시 아파트 단지 밀집

☎ 02-744-2266

분양 (신축상가) 임대

- ▶ 지에이 메디컬 타워 (2023년 11월 준공예정)
- ▶ 경기 광주 이마트 앞 (핵심 상권)
- ▶ 지하 5층 지상 13층/ 주차 192대/ 에스컬레이터1-3층/ 엘리베이터 4대
- ▶ 층당 전용면적 360평
- ▶ 검진내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향문외과 성형외과 안방병원 산부인과 신경외과

분양, 임대: 010-2870-9997
 담당자: 윤현철 부장

병의원 임대

- 지하철 4호선 미아역 200m
- 5번 출구 도보 2분 이내
- 버스정류장(미아역, 신일중고) 횡단보도 바로 앞
- 8층 건물 중 5층 181.29㎡(55평)
- 내과, 안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문의전화 010-5257-5348(건물주)
 02-2267-7343

권리금NO. 병원 최적지

성수역(2호선) 삼진빌딩
 3층 71평(전용)
 보증금: 일억오천만원/ 월660만원
 ○엘리베이터 2대/ 냉난방 완비
 ○현재 병원 성업중
 ★분할 임대 가능
 ☎ 010-6854-0119

의사신문

광고 문의하세요!

☎ 02-2634-9290~1

★중심상업지역 특급 상가 임대★

- * 위치: 강북구 노해로3 (수유동)
- * 건물: 지하2층, 지상15층 중 4층 전체 전용 251.09㎡(약76평)
- * 용도: 병·의원 (피부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한의원), 금융 사무실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 법인 업무시설 등 모든 업종)
- * 임대: 보증금 2억, 임대료 700만원
- * 입지: 강북 최고의 중심상권 4호선 수유 전철역 앞
- * 전면 50m 광대로 양면 6m 삼거리 코너건물에 위치
- * 문의: 건물주 직접 임대 (공인중개사·부동산·소계시 수수료 즉시 지불함)

010-2371-4832 | 02-6316-8806

병 · 의원 임대

- ▶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6 (지2/9층)
- ▶ 1개 층 145.87㎡ (공용44평, 전용38평)
- ▶ 1개 층 보증금 5천만원
- ▶ 월세 450만원 관리비 50만원
- ▶ 2021년 신축, 각 층에 남녀 화장실
- ▶ 낙원상가 인근 지하철 1,3,5호선 교차하는 요지

연락처: 010-3008-0145

운정 특급 / 풍부한 배후지 상권

- * GTX-A 인접, 56번 국도 바로 옆 상권
- * 2만여 주민 배후세대 상권
- * 초,중,고 학생을 둔 젊은세대 상권
- *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등 환영 (지원혜택)
- * 운정신도시 월드타워 18차 상가

분양 · 임대 문의 031-945-1100

병의원 임대

동작구 시흥대로 646(신대방동)
 동남빌딩(대림성모병원 건너편)
 2층(65평), 3층(55평)
 43년 개원 하고 은퇴하는 건물
 인테리어 리모델링 했음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바로 옆 건물
 Tel: 010-8764-4505

와인중개소

5대 사또 / 고가·희귀와인
 올드 빈티지 전문 최저가
 전 세계 와인 Collector 정보제공
 와인 구매대행
 E-mail: info@oldwinekorea.com
 자회사/루키루키: www.rookierookie.co.kr

NAVER 와인중개소


▶ 16면에서 계속

조수경 김영서 김현영 배재만 이경근 전래희 이형중 이규현 백승삼 정미애 임태호 조석현 신진호 강형구 김근호 성일훈 송순영 이영호 문 원 박준성 김용태 한성희 고주연 박현경 정민성 전형준 강창남 이정호 <이상 328명>

■한일병원
 서형우 유정영 이동우 함상근 한민수 최휘영 조인수 이창균 손상태 이우용 권보람 안효용 서상준 김동춘 김대성 김경욱 고영민 안창혁 이인영 <이상 19명>

■홍익병원
 이준범 김준기 김중오 조운정 김광훈 권기환 이재환 조원식 정영욱 김장원 윤건중 노형진 송하섭 홍정덕 김미선 이정현 박임찬 박아영 황재현 오경미 이지은 김원용 라기혁 정승화 한영미 <이상 25명>

■개인별
 김동운 유동희 홍수민 조한내 안영민 장영철 김명수 김기봉 박소형 백상홍 김흥식 김영재 박명하 홍성태 장수경 문경혜 최진숙 김경진 이용걸 김이연 이정근 한승희 신현호 이순기 오인훈 이은주 윤지환 양성규 최준수 황선진 오나경 오우진 백현욱 안미경 김상균 김혜주 양주연 안근영 곽상준 김숙희 서흥희 진선미 이영인 김형래 박동분 박강현 서창해 김현숙 이의진 김성원 황미자 안명옥 이서희 안양수 한표성 정유리 이상겸 강선경 지두현 이동규 홍태호 김재호 최효정 장재용 이소현 주자영 이영주 임정현 조길우 안덕선 김순덕 문선희 허재균 이경원 김철수 강요한 차유진 서창인 두진영 손수민 임승원 장진대 이상국 안혜신 허경은 김효신 박창해 이상훈 <이상 88명>




디지털
의사신문
The Korean Medical Doctor's News
Doctorstimes.com

최신 의료계 소식을 전하는 '디지털 의사신문'은 늘 회원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의사신문의 최신 의료계 소식이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디지털의사신문은 열린 정보의 광장입니다. 자! 디지털 의사신문을 클릭해 보세요.





의사신문 편집국 · 광고국 : 02-2636-1056~8 | FAX 2676-2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99, 서울시의회관 401호.
 www.doctorstimes.com | docnews@daum.net



전문약품



Bleuler
Eugen Bleuler, 1857-1939

**FROM Remission
TO Recovery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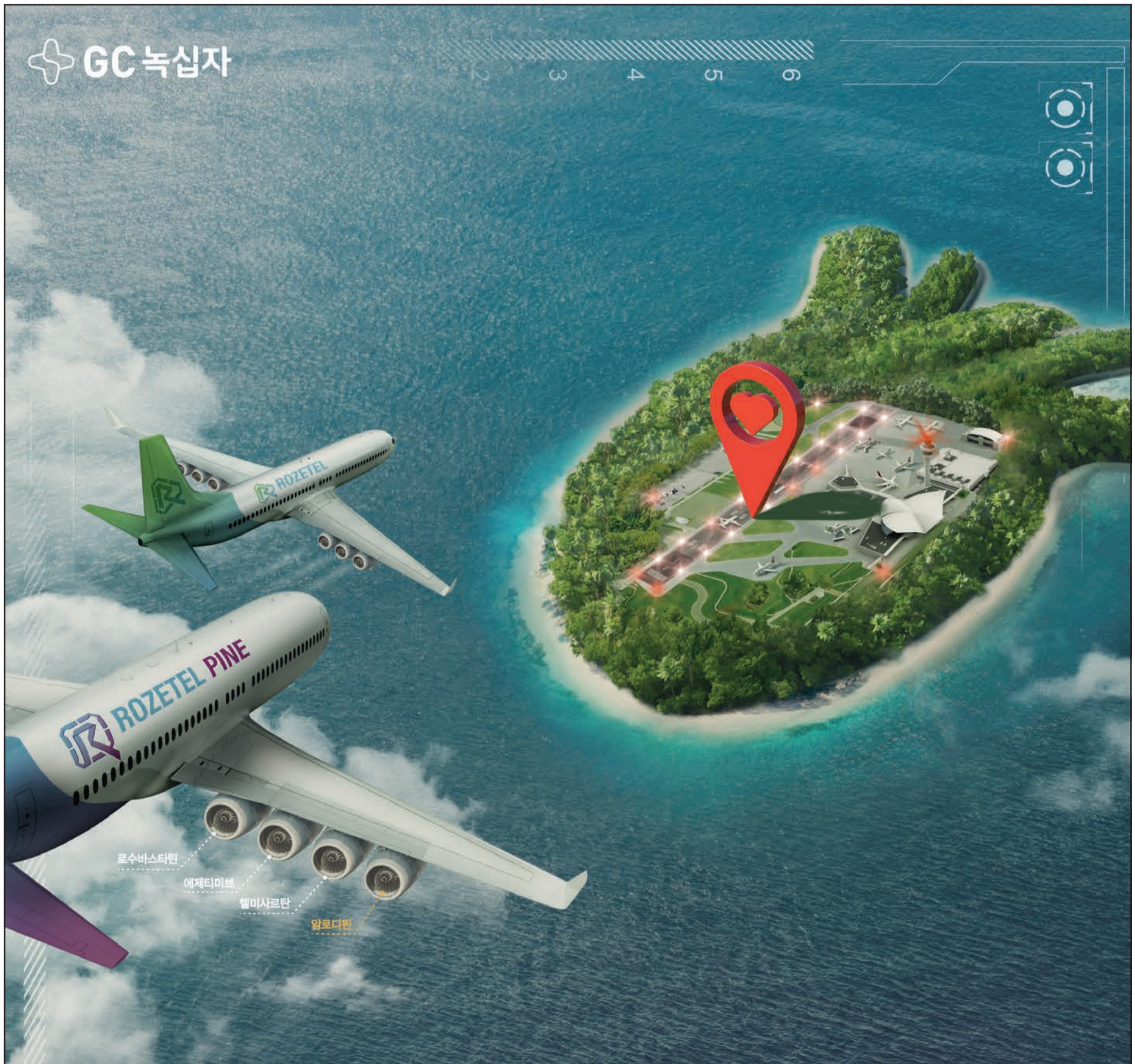
클자핀[®]정

Clozapine 25mg/50mg/100mg/200mg

동화약품

1.Kim S, et al. Psychiatry Investig. 2021 Oct;18(10):968-976

GC 녹색자



로수바스타틴
 에제티미브
 텔미사르탄
 암로디핀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DIRECT FLIGHT DIRECT TARGETING

로제텔 / 로제텔핀

효과적인 이상지질혈증 & 고혈압 3제, 4제 복합제
 로수바스타틴 · 에제티미브 · 텔미사르탄 · 암로디핀



SC180113042024 / 09-0211-4402110-01 (제 257100516 100-9611-010021100-01 (제 2023110)